

## 경기도 김동연지사, “평화경제와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꿈, 경기도가 앞장서겠다”, 평양공동선언5주년 기념식서 밝혀



문재인 전 대통령, 전 국회의원 문희상, 전 통일부장관 임동원, 정세현, 전 통일외교안보특보 문정인, 경기도 등 5개 광역단체 단체장, 부단체장 등 참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전 70년 및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을 맞아 “평화경제의 꿈,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꿈을 살리기 위해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19일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의 꿈이 선출된 권력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며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정상화, 경제협력, 핵 위협 없는 한반도,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개최 공동노력’ 평양공동선언에 담긴 내용들도 색깔이 바뀌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천400만 도민이 살고 있는 경기도가 민주주의와 경제와 산업의 중심, 가장 큰 접경지라는 특징을 살려서 우리가 추구했던 민주주의의 꿈, 민생경제의 꿈, 평화의 꿈을 살리는 데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5년 전에 썼던 평양공동선언의 꿈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를 포함한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광주광역시·전라남도·전라북도·제주특별자치도)와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회, 김대중재단, 노무현재단이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김동연 지사를 비롯해 문재인 전 대통령, 문희상 전

국회의장 등 100여 명이 참여 했다.

행사는 총 2부로 구성됐다. 1부 첫 번째 주제인 ‘평화의 힘, 평화의 길’ 토론에는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좌장을 맡고, 최종건 연세대 교수, 임원혁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김도권 전 남북군사회담 수석대표, 윤건영 국회의원, 이기범 숙명여대 명예교수 등이 발표 및 토론자로 참석했다.

다음 주제인 ‘평화를 향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연대’에서는 문정인 전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좌장을 맡고,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등 광역지방자치단체 부단

체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오후석 부지사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디엠지 오픈페스티벌(DMZ OPEN Festival)’과 ‘평화경제특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 평화를 위한 경기도의 노력에 대해 소개했다.

2부 행사인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서는 임동원 한반도평화포럼 명예이사장 등 각 정부를 대표하는 인사들을 초청해 노태우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로 이어지는 역대 정부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과 그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범상/기자

## K-푸드 세계화, 경북 농식품이 선도한다!

### 2024년까지 수출 10억 불 달성, 글로벌 명품 브랜드로 자리매김

최근 전 세계적으로 K-열풍이 불면서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미국에서는 냉동 김밥이 품절 대란을 일으키고 있고, 한국 내 수출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그야말로 K-푸드 전성시대라 할 수 있다.

경북도는 K-푸드를 선도하는 글로벌 농식품산업 구현을 위해 2024년 수출 확대 전략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해 수출 100만 이상 기업을 2022년 현재 27개소에서 2030년까지 100개소 이상 육성할 계획이다.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의 선봉장 역할을 맡고 있는 프랜티어 기업에 대해서는 지정 동반을 수여하고 시설·장비 현대화, 해외 판촉 등을 지원한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30개소를 지정했으며, 올해는 미국 Costco사에 사와와인 21만 불을 처내 수출한 의성 소재 한국애플리츠를 지정했다.

WTO 농업협상(15년 나이로비) 결과 2024년부터 수출물류비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경쟁력 있는 수출 품목 발굴과 품질 향상, 위생·검역에 대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하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위생·검역 안전 규제 준수에 따른 농가소득 보전을 주요 내

용으로 한 대체 사업도 시행할 예정이다.

국제 기준을 선도하는 명품 브랜드 육성을 위해 해외 판매까지 품질 유지 및 구매동기 유발 등을 위한 디자인 개발 비용을 건당 최대 5만 원까지 지원하고, FDA-HALAL-ISO22000 등 국제적 동등성 제고에 필요한 국제 인증 취득 비용도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안동소주 우수성 부각으로 세계 주류 시장을 공략하고자 올해는 품질 인증제 및 등급 기준을 마련하고 BI(Brand Identity), 공동 주병을 개발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지역 전통주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세계주류박람회 참가, 국제학술대회 개최 등 관련 산업의 외연 확대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해외에 진출 나가보니 한류 열풍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다. 특히 K-푸드가 그 중심에 있을 정도로 한국 농식품의 인기가 높다”면서, “농식품 수출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세계를 휩쓸고 있는 K-푸드 열풍을 우리 경북이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전남도, 국회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전략 논의

### 19일 ‘대한민국 탄소중립과 남해안 남중권의 역할’ 국회포럼



남해안 남중권에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를 유치하기 위한 전략 논의의 국회 차원에서 이뤄졌다.

전라남도에서 따르면 19일 오후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 탄소중립과 남해안 남중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국회포럼이 열렸다.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이원욱 등 국회의원 8명이 공동 주최하고, 전남도, 여수시, (사)탄소중립실천연대, CDP한국위원회 사무국, (사)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공동 주관했다.

기후위기 문제의 심각성에 앞장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에 기후위기 난제를 극복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와 경남도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남해안 남중권 공동 유치를 위해 지난 4월 ‘상생발전협약’을 하고 긴밀한 협력을 펼치고 있다.

박종배/기자

2023  
**경북 영주 YEONGJU PUNGGI GINSENG FESTIVAL**

# 풍기인삼축제

2023.10.07.토  
 — 9일간 10.15.일

주최·주관 | 영주시·(재)영주풍기인삼축제조직위원회  
 문 의 | (재)영주풍기인삼축제조직위원회 (054) 635-0020  
 www.ginsengfestival.co.kr

# 경북도-도의회-안동시, 안동청년 목소리 직접 듣는다

## 안동청년들과 함께 『경북청년 릴레이 생생토크』 개최

경북도는 지난 19일 안동시 문화플랫폼 도미684에서 『경북청년 릴레이 생생토크 (안동시 편)』를 개최했다.

권기창 안동시장, 김대일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 권광택 교육위원회 위원, 김대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안윤안-김새롬 청년 시의원, 차순에 경북도 청년정책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정책에 대한 안동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앙정부의 청년정책 및 지역 청년 환경의 다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경상북도 청년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청년이 직접 제안하는 사업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참석한 안동청년들과 'K-U시티



정책' 등 경북도와 안동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청년정책의 방향과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청년 CEO-청년 농업인 등에 대한 입



정책 지원 및 청년 정부 여건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했다.

차순에 경북도 청년정책과장은 "청년은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의 주역이다. 경북도는 청년의 목소리를 지속해 듣고 시군과 적극 협력해 청년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부산시의회,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법제화

## 박종용 의원 발의,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부산지역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용 의원(복구4,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19일) 제316회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수도법'에 따라 수도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세계 기후변화와 이상고온 현상에 따라 수자원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수도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법적·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도물의 수요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 시장이 건축물이거나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재정지원 근거, 물 절약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박종용 의원은 "우리나라는 계절별 강수량의 편차가 심각하고, 기후위기로 물이 지속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물



김희태/기자

절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부산시 차원에서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도물의 절약 및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김희태/기자



# 박규탁 경북도의원, 추석 명절 맞아 노인복지시설 위문

## 칠곡군 성기양로원 방문해 위문품 전달 및 관계자 격려



경북도의회 박규탁 도의원은 지난 15일 의회사무처 직원과 함께 칠곡군 소재 성기양로원을 찾아 도의회에서 준비한 위문품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한기위를 맞아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있는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위로와 감사를 전하기 위해 마련했다.

박 의원은 "매년 명절마다 복지시설을 찾아, 시설 현황 및 애로사항을 듣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복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어르신들께 힘쓰고 있는 시설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인장 넘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김진남 전남도의원, '따뜻한 누룽지' 온정

## 추석 명절 맞아 순천조례종합사회복지관 위문 및 직원 격려

전남도의회 김진남 도의원(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순천5)은 19일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순천조례종합사회복지관에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관계자와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전달된 물품은 누룽지로,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에 필요한 물품으로 준비했다.

김 의원은 "그 무엇보다도 식사는 중요하며, 이는 사람의 온정을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며 "소소하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준비한 누룽지 함께 정을 나누며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더 온정의 손길이 지속될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을 담은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순천조례종합사회복지관은 3대 가능사업을 중심으로 아동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문성 있는 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해 나가고 있다. 지역사회와 더불어 이용자 중심 프로그램과 대상자 특성에 맞는 사업으로 지역주민에게 꼭 필요한 복지시설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박종배/기자

# 김영철 서울시의원, '공공보행통로', 공공성과 주민의 안전을 모두 고려해서 조성돼야..

## 주민 입장의 사유재산권 침해 및 안전 문제 등의 지원방안 강구 요청



서울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7일, 제320회 임시회 도시계획소관 주요 업무보고 회의에서, '공공보행통로' 조성 시, 아파트 주민의 안전과 인근 지역 주민의 편의를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영철 의원은 이번에도 김영철 대표 발의한 '지구단위계획 실행령 강화 촉구 건의안'과 관련하여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공공보행통로 조성'에 대해 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발의한 건의안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사업 진행 이후의 관리방안 부재로 지속적인 도시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발의했다.

본 건의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내용에 따라 개량이나 인입된 경우 ▲ 해당 필지 내 건축물과 공간 등이 지구단위계획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관리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 지구단위계획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처분을 강화하도록 하

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공공보행통로'의 경우, 외부인의 출입이 찾아지면서 주민의 불편이 증가하므로 아파트 차원에서 주민 외 일반인이 통행할 목적으로 '공공보행통로'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받게 된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이를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현행 '공공보행통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공공보행통로'는 지구단위계획에서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된 통로를 말한다.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용역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공보행통로' 조성을 계획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서울시에서 올해 3월에 '공동주택 공용성능 인센티브 개선 계획'에 '지역권'을 설정하는 방안을 개선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서울시가 중앙정부 차원의 법 개정 이전에 선제적으로 제도정비를 한 것은 매우值得 일이다."고 강조했다.

'지역권'은 통행 등 일정 목적으로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로서, '공공보행통로'에 '지역권'이 설정되면 주민 이외의 일반인이 통행할 목적으로 '공공보행통로'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받게 된다.

다만 아파트 주민들의 인장도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주민들의 입장에서 '공공보행통로'의 조성이 사유권 침해 및 안전과 보안 문제와 직결이 되므로 주민 입장에서선 당연히 불합치 않을 것이다"고 말하고, "아파트 단지의 보안과 안전을 위한 지원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 '공공보행통로' 조성으로 용역을 인센티브를 받으신 아파트 주민들은 사실상 재산상의 이익을 보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잘 이해시켜서 주민의 협조를 높일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말하고, "공공성과 주민의 안전, 이 두 가지 균형을 잘 찾을 수 있도록 지혜롭게 고민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광수/기자

# 대구시의회 전경원 운영위원장 '통장-이장-반장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보상금 인상 건의'

## 대한민국시도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 안건 상정



대구시의회 전경원 운영위원장(수성구4)이 제안한 통장-이장-반장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보상금 인상안이 대한민국시도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된다.

통장-이장-반장은 지방 최일선 행정조직인 읍-면-동 단위에서 행정시책 홍보, 주민여론-건의사항 보고, 주민등록사항 확인, 민방위 통지서 송달 등 여러 임무

를 수행하면서 행정기관과 주민 간의 의사소통의 통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통장-이장-반장의 업무량에 비해 활동보상금이 적어 일부 지역에서 결핍을 호소하지 못해 정당한 공익이거나 몇 곳을 제외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구급대에 시달리고 있다.

전경원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통장-이장-반장의 활동보상금은 2008년 제정된 이후 15년째 제자리 수준이다"며, "2019년 통장-이장의 기본수당 상한액이 월 300,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나 여전히 열악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행정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통장-이장-반장의 처우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통장-이장-반장의 실질적인 권익 향상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 편집장:최재은 부편집:임성재 청소년책임편집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제호: 문화매일신문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광고국:1899.9659

경 차 부:내선 (112) 문 화 부:내선 (116) 사 부:내선 (113) 부등산부:내선 (117) 경 계:내선 (114) 조계남부:내선 (118) 조계남부:내선 (115) 지 방 부:내선 (119)

서울특별시 개봉로 12길 9-19 로얄홈타운 102동 202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경기도-서울시 청년 저출산 정책 진단 및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 경기도의회 연구단체 청국회 이인애 회장, “경기도와 서울시가 함께 고민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 찾아야...”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이 회장으로 있는 의원연구단체 ‘청국회’는 18일 서울시의회 국의힘 회의실에서 서울시의회연구단체 ‘서울혁신포럼’과 함께 ‘경기도-서울 청년 저출산정책 진단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 앞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호정 의원(국회의원, 대표의원, 서초4)은 “대한민국의 최대 도시 서울시와 경기도의 젊은 의원들이 함께 모여 청년 정책의 해법을 찾는 이 자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논의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간담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인애 의원은 “대한민국 청년은 ‘N 포 세대’로 일컬어질 만큼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등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기도와 서울시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도 대한민국 청년이 겪는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며, “이런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경기도-서울시 의회의 적극적 활동이 기대된다”고 했다.

함께 참석한 리더스클럽 손소주 대표의 강연에서 “현재 청년들이 겪는 사회적 문제를 다각도로 파악하고, 이종배 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포괄적 정책 개발을 통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저출생과 일·가정 양립이 화두인 이 시점에 경기도-서울시 청년 의원들끼리, 소통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이번 만남을 시작으로 양 의회가

지속적인 교류를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의회 측은 이인애 청국회 회장(국회의원, 고양2), 김현석(국회의원, 과천), 김일중(국회의원, 이천1), 오창중(국회의원, 광주3) 의원이 참석했으며, 서울시의회 측은 최호정(국회의원, 대표의원, 서초4), 이상욱(국회의원, 비례), 김길영(국회의원, 강남6), 김구남(국회의원, 송파1), 김해영(국회의원, 광진4), 윤영희(국회의원, 비례), 김해지(국회의원, 강동7), 송경택(국회의원, 비례), 김중길(국회의원, 영등포2), 이종배(국회의원, 비례), 심미경(국회의원, 동대문2), 이호원(국회의원, 비례)의원이 참석했다.

“청국회”는 경기도의회 연구단체로 청년이 겪고 있는 문제를 조사하고, 청년을 위한 정책을 연구하여 청년 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립됐다.

김병삼/기자

# ‘경기(주)’, 탄소중립·기후테크 등 ‘경제’ 살리기 맞손

## 18일 경기도-제주특별자치도, 상생 협력 9개 과제 합의



경기도와 제주특별자치도가 탄소중립 정책을 교류하고 양 도의 천연자원을 활용한 바이오산업 육성,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공동 대응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8일 경기도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9개 과제에 관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일기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경기도의 ‘경’과 제주도의 ‘제’를 따서 ‘경제살리기’ 상생협력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결실을 맺게 됐다. 아울러, 경기도와 제주도의 천연-정경 자원을 활용해 맞춤형 관광상품 및 천연기반 식의약 소재들을 발굴, 바이오산업 규모를 확장하고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일기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경기도의 ‘경’과 제주도의 ‘제’를 따서 ‘경제살리기’ 상생협력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결실을 맺게 됐다. 아울러, 경기도와 제주도의 천연-정경 자원을 활용해 맞춤형 관광상품 및 천연기반 식의약 소재들을 발굴, 바이오산업 규모를 확장하고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 밖에 양 도 생산 농가의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농특산물 상생장터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효율적인 친환경학교급식 체계 구축을 위해 협업을 상호 공급도 할 예정이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광 브랜드 및 자생에너지, 밀산업 육성 및 쌀산업, 평생교육 협력 강화 및 콘텐츠 공동 활용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일기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경기도의 ‘경’과 제주도의 ‘제’를 따서 ‘경제살리기’ 상생협력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결실을 맺게 됐다. 아울러, 경기도와 제주도의 천연-정경 자원을 활용해 맞춤형 관광상품 및 천연기반 식의약 소재들을 발굴, 바이오산업 규모를 확장하고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 밖에 양 도 생산 농가의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농특산물 상생장터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효율적인 친환경학교급식 체계 구축을 위해 협업을 상호 공급도 할 예정이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광 브랜드 및 자생에너지, 밀산업 육성 및 쌀산업, 평생교육 협력 강화 및 콘텐츠 공동 활용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9개 합의사항은 ▲탄소중립·기후테크 분야 정책교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공동 대응 ▲고양·사당·원주 지역 활성 화 상호 협력 ▲천연-정경자원 활용 바이오산업 육성(Scale-Up) ▲온라인 농특산물 상생장터 공동 운영 협력 ▲학교

한편, 경기도는 민선8기 김동연 지사 취임 이후 충남, 전남, 전북, 광주에 이어 11번째 제주까지 총 5개 광역자치단체와 상생협약을 맺었다. 이는 충남과는 지난 3월 배너리 매거티브 세미나를 개최하고, 전북과는 지난날 경기·전북 청소년 교류 캠프를 운영했다. 지난 12일에는 마켓 경기를 통해 전남 특산물을 판매하는 등 협업을 그치지 않고 광역자치단체와 실질적인 실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병삼/기자

#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경기북부지역 산지생태축산 활성화 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 의원(국민의힘, 동두천2)이 회장을 맡은 “경기북부지역 산지생태축산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9일 오후 2시 동두천시 평생학습관 한울림공연장에서 개최됐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서경일 강원대학교 교수는 산지생태축산의 친환경적 자연 순환과 초지조성 등의 기술적 문제 및 그 해소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해외의 성공적인 산지발육 축산사례를 소개했다.



이어서 첫 토론자인 김성수 전 18대 국회의원은 수도권에 위치한 동두천의 미군 반환공여지에 산발축산 축산의 시범농장 운영은 시의적절한 개발방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인 산지생태축산의 초지조성의 어려움과 기술적 지원 필요성을 지적하고 미군 반환공여지의 산악지역의 활용방안으로 미래지향적인 기반 구축을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주최하는 “2023 경기도 정책토론회” 일환으로서, 경기북부 현안에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온 임상오 의원이 동두천시 미군반환공여지의 산지생태축산으로의 활용가능성을 모색 하고자 마련했다.

이어서 국립목종과학원 연구사는 초지 조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년생 목초와 관리기술의 개발 및 지원사업의 확대, 축산물 인증제도를 통한 수요 촉진과 초지의 탄소저장 등 공익적 기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후 토론자인 송영수 다음농장 대표는 초지발육은 생산비 절감과 농가소득 향상에 의미가 있으나, 지원정책의 부재와 방목생태축산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부족

역경에 어려움이 있다며 체계적인 정책지원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연구간사로 인한 지역소멸의 위기를 맞아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인 ‘생활인구’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면서 동두천에 산지생태축산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은 생활인구를 늘리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병삼/기자

#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 학생건강증진 프로그램 내실 운영 촉구

## 보여주기식 (가칭)학생건강증진센터 설립보다 ‘건강증진 프로그램 내실화’가 중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8일 열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학생들의 건강증진 활동 지원을 위해 (가칭)학생건강증진센터의 설립을 계획하고 있지만 운영방향이 모호해 단순한 조직 늘리기라 될 우려가 있다며, 실제

학생들의 피부에 와닿는 학생건강증진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주문했다.

(가칭)학생건강증진센터는 경기도교육청이 33억 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3월까지 경기 북부권역에 설치하고 학생들에게 미래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제공과 도내 학교 700개교를 선정해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한

다는 계획이다.

이자형 의원은 “센터에서 지원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학교 자율적으로 적정 체육,는 건강, 불균형체형 관리 등을 선택해 실시하는 건강증진학교 사업의 차이가 무엇인가?”라고 질의하자, 홍정표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은 사업 차이에 대한 설명은 부재한 채 “센터의 설립이 늦어지면서 당초 센터가 추진하기로 한 사업이 각급 학교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으로 바뀌게 됐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 의원은 “센터의 설립이 학생 건강증진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도록 프로그램이 직접으로 운영되자 단순히 학교에 사업비만 내려보내는 조직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이자형 의원은 “센터의 설립이 학생 건강증진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도록 프로그램이 직접으로 운영되자 단순히 학교에 사업비만 내려보내는 조직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센터의 설립이 학생 건강증진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도록 프로그램이 직접으로 운영되자 단순히 학교에 사업비만 내려보내는 조직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김병삼/기자

# 경기도의회 조희선 의원, 청소년 연극제 및 관악제 공정 심사 촉구

## 경기도 평생교육국 청소년과와 심사위원 관리, 현장 청중 평가 도입 등 논의

경기도의회 여성가족정책위원회 조희선(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19일 오후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평생교육국 청소년과 관계자들과 함께 청소년 연극제·관악제의 공정한 수상자 선정에 관한 정담회를 열었다.

있는 청소년이 정당하게 수상을 할 수 있도록 공정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심사위원 선정시 위탁기관에 모두 맡기지 말고, 관계 공무원이 직접 관리감독하는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청소년 연극제는 권역별 예선대회를 통한 만큼 대상을 본인이 개최하는 것으로 지난 1992년 제1회 대회가 개최됐다. 청소년 관악제는 도내 초·중·고 관악원예들이 경연하는 대회다.

조희선 의원은 “연극제와 관악제의 심사위원 선정시 비전문가가 참여하거나 인맥으로 부당한 점수를 줄 수 있는 여지를 차단시켜야 한다”며 “정말 실력이

있는 청소년이 정당하게 수상을 할 수 있도록 공정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심사위원 선정시 위탁기관에 모두 맡기지 말고, 관계 공무원이 직접 관리감독하는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세부사업별 예산을 조정할 예산안조정추진위원회를 8명의 위원으로 구성했으며, 이자형 의원도 예산안조정추진 위원으로 선임돼 계속조정 작업에 직접 참여한다.

김병삼/기자



# 수원시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에 '수원공유냉장고' 설치

## 수원공유냉장고 25호점 개소식, 국제로타리 3750지구 수원지해로타리클럽 후원 약속

수원시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에 25번째 '수원공유냉장고'가 설치됐다. 수원시는 19일 센터 대강당에서 수원공유냉장고 25호점 개소식을 열었다. 국제로타리 3750지구 수원지해로타리클럽은 개소식에 앞서 수원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6월까지 공유냉장고를 채울 음식물을 후원하기로 했다.

2018년 1월 수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권선구 고색동에 처음 설치한 '공유냉장고'는 누구나 음식물을 냉장고에 채워놓을 수 있고 음식이 필요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냉장고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마을에 유기적인 '먹거리 네트워크'를 형성해 마을공동체를 복원하는 '사랑·나눔·공유 프로젝트'다.

공유냉장고에는 채소를 비롯한 식재료, 과일, 반찬류, 통조림과 같은 가공품, 냉동식품, 음료수, 곡류, 빵, 떡 등을 넣을 수 있다. 유통기한 전여일이 2일 이내인 음식물과 주류, 약품류, 건강보조식품, 불량식품 등은 기증할 수 없다. 음식 나눔을 원하는 주민은 공유냉장고를 운영하는 업소·기관에 기증을 신청한 후 음식을 냉장고에 넣으면 된다.

개소식에는 수원시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 조용혁 센터장과 센터 회원, 국제로타리 3750지구 수원지해로타리클럽 손기용 회장, 권영희 장안구보건소장 등이 참석했다.

조용혁 센터장은 "공유냉장고와 시민과 센터 회원 간 먹거리 나눔의

장이자 따뜻한 마음을 공유하는 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고, 손기용 회장은 "복지사각지대에 놓



인 지역사회 이웃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영희 장안구보건소장은 "공유냉장고가 주민들이 교류하고, 소통하는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며 "정신건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바란다"고 말했다.

김범삼/기자

# 이동환 고양시장, 추석맞이 사회복지생활시설 방문 위문금 전달

## 26개소에 위문금 2500만원 전달, 고양지역자활센터, 신애원 등 3개소 방문해 격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들이 따뜻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19일 관내 26개소 사회복지 생활시설 780명에 위문금을 전달하고 사회복지시설 등 3개소를 방문해 시설 관계자와 종사자를 격려했다.

이 시장은 매년 명절마다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하고 넉넉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는 총 5,000만원으로 입소자 현황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위문금을 전달했으며 이번 추석에는 사회복지 생활시설 26개소에 2,500만원을 지원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추석 명절에 소외된 이웃 없이 모두가 풍요로운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까지 꼼꼼히 살펴달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분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해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복지 서비스를 실현해나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영기/기자



# '어르신과 함께하는 어린이예술제' 성남시청서 열려

## 0100 사랑 나눔 꿈을 잇다...0세부터 100세까지 세대 간 소통 무대 펼쳐져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는 9월 19일 오후 2시~4시 시청 은누리에서

세대 간 함께하는 즐기는 소통의 무대가 펼쳐져 관객들의 박수갈채와 환호가 이어졌다.

초청 가수 권미희의 트로트 공연과 정혜정 예술단의 '퓨전 장구', '남도민요' 무대도 마련돼 예술계 분위기를 달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어르신과 함께하는 어린이 예술제는 세대를 뛰어넘어 0세부터 100세까지 사랑을 나누고 서로의 꿈을 잇는 멋진 행사"라며 격려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성남시 국공립 어린이집연합회는 지역 내 106곳 어린이집이 회원(원생 6600명, 보육교사 1681명)으로 속한 단체다.

어린이예술제 외에도 취약계층 물품 지원사업, 사랑의 난방비 지원사업 등 다양한 형태로 '0100 사랑 나눔' 활동을 전개해 훈훈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오고 있다.

김범삼/기자

# 안양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위한 '지역 건설현장 소장과 간담회' 개최

## 최대호 시장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선순환되도록 적극 소통할 것"



안양시는 19일 오후 2시 시청 도로교 통원전강장실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해 민간 재개발, 재건축의 건설현장 소장과 간담회를 추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유한호 안양시 도로교통환경국장을 비롯한 도로과장, 도시정비과장 등 관련 담당자는 현장소장들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 및 식음 이용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어질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타 현안사항 등을 나눴다.

특히, 공사장 인근 식음 이용에 대한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경기침체 속에도 안양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주시는 시공사 및 현장소장들과 지속적인 소통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지

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선순환되도록 건설업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안양시는 올해 관내 민간 건축현장의 시공사 11곳(8개 기존)과 관내 공사·용역업체와 하도급 우선 체결, 관내 생산 자재 우선 구매, 안양시민 우선 채용 및 인근 식음 이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신우용/기자



# 광명시, 도시변화에 맞는 행정구역 개편안 마련한다

## 19일 행정구역 개편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

빛을 품은 광명시

광명시는 19일 광명시청 총회의실에서 '효율적 행정구역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운영은 최근 진행 중인 뉴타운, 재건축을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미래 도시환경 변화에 맞는 행정구역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날 보고회는 김규식 광명시 부시장을 비롯하여, 행정재정국장, 자문위원, 18개 동 행정복지센터장과 관계 부서장이 참석하여 연구진으로부터 용역 추진 방향, 연구 방법,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을 보고 받고 질의응답 및 전문가 자문 순으로 진행됐다.

김규식 부시장은 "광명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구역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연구를 진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 4개월 동안 광명시 행정구역의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여론 수렴 및 원칙 수립 등을 거쳐 광명시 행정구역 경계 조정 및 개편안을 연말까지 마련해 2024년 상반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윤용민/기자



# 더불어민주당 화성병 지역위원회-화성시, GTX-C 병점 연장 건의를 위한 긴급 당정협의회 실시

## 19일, 화성청년지원센터(HEY)에 모여 GTX-C 병점역 연장 조속 확정 및 2028년 개통 논의



19일, GTX-C 노선의 병점역 연장을 국토부에 정식 건의를 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화성병지역위원회와 화성시가 모여 긴급 당정협의회를 실시했다.

회의는 화성시청년지원센터(HEY)에서 진행됐으며, 김철수 지역위원장과 정영근 화성시장을 비롯한 도의원, 시의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여 사업 추진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GTX-C 노선은 경기도 양주시와 수원을 잇는 국가 철도망으로, 병지역위원회와 화성시는 기존 수원역까지 계획된 노선을 병점역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관계기관에 여러차례 건의해 왔다.

또한 지난 8월 시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GTX-C 노선 운영 및 병점역 환승 여건 개선 검토 용역'에서 사업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으며, 비슷한 시기에 GTX-C 본선(수원-덕성)에 대한 국토부와 민간사업자 간 실시협약이 체결되어 연장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날 당정은 국토부에 사업을 정식적으로 건의하기에 가장 적기로 판단하고, 2028년 병점역 개통을 목표로 한 본연계 부담방식의 사업 추진을 9월 중 국토부에 요청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철수 위원장은 "병점역 주민들의 열망이 반영되기를 바란다"며 "이제 당정이 임의적으로 노력하여 많은 진전이 있었는데, 마지막 단추인 사업 확정을 위해서는 올 하반기가 매우 중요하다"며, "9월 중 국토부에 정식적인 사업 건의를 시작으로, 당정이 행정적, 정무적 힘을 모아 GTX-C 연장 사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민간의 준비를 하겠다"고 했다.

정영근 시장은 "병점역의 가장 큰 현안인 GTX-C 연장을 확정하기 위해 우리시에서도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말과 함께, "하루 빨리 사업을 확정지어 시민 여건을 더 나은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양시현/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2014년 남극 방문해 기후변화 심각성 경험... 지구 살리는 주역 돼달라”생태학교서 특강

## 동백중에서 남극 장보고 기지 준공식 참석 경험 소개하며 남극 등 지구의 기후위기 문제 설명

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9일 '지구를 생각하는 생태학교 육성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학교를 방문해 2014년 남극 장보고 기지 준공식에 참석했던 이상일 시장이 "남극이 야기와 기후위기를 주제로 강연했다. 강연에는 동백중 1학년생과 학부모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2014년 2월 남극 장보고 기지 준공식에 참석했던 이 시장은 강연에서 남극의 기후변화, 극지생물의 중요성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 시장은 기후위기를 변화된 남극의 사진과 영상을 보여주며 기후위기의 심각성, 기후위기를 대응을 위한 비상한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기후변화가 심각한 곳인 남극이다. 한국의 남극기지가 두 곳이 있는데, 지구 변화, 생태계 전반의 문제, 지구 탄생의 비밀, 운석, 지하자원 등에 대해 연구한다. 남극에 기지가 두 개 있는 나라가 열 나라 정도 된다"며 "질려와서 가까운 남극의 성 꼭대기 세종 기지를 먼저 만들고 이후 대륙 쪽에 장보고 기지를 세웠다. 2014년 2월에 당시 국회의장과 함께 장보고 기지 준공식에 참석했는데 남극의 여러 현장을 둘러봤다"고 소개했다.

이 시장은 "남극도 기후위기로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있다. 가려면 1만3000키

로 넘는 거리를 뉴질랜드에서 군 수송기를 타고 9시간 비행해 미군 기지 옆을 위해 착륙한 후, 헬기를 타고 아라온호에서 1박 2일을 항해해서 장보고 기지로 가게 된다"며 "남극은 한국의 62배나 되는 크기가 많은 나라들이 이곳에 기지를 두고 기후변화를 연구한다"고 설명했다.

장보고 기지 건설 과정도 소개했다. 이 시장은 "현대건설이 다른 나라는 기지 건설에 4~5년 걸리는 것을 2년 만에 했다. 겨울에는 24시간 내내 어둡서 온도가 오르고 24시간 내내 환한 여름에만 공사를 했다. 기지를 조립 방식으로 2년 만에 완성에 다른 나라에서 감탄할 정도였다"며 "세종 기지와 장보고 기지가 4500km 떨어져 있는데 세종 기지는 24시간 켜고 남극 현상은 없고 장보고 기지는 겨울이 24시간 켜고 여름이 100일 정도 켜진다. 남극의 여름은 11월에서 2월로 우리나라와 반대다"라고 말했다.

극지 연구와 관련해 이 시장은 "남극의 눈은 3800미터가 쌓인 곳도 있다. 몇 만 년 전에 내린 눈도 멀어 있다. 자료



면에서 깊이 파고 내거면 1000년 전 것, 1만 년 전 얼음을 채취할 수 있는데 얼음을 분석하면 그때의 기후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며 "지구 생태계를 잘 보여주는 곳이 남극이다. 눈의 성분은 보면 생인 시기 축적이 가능하고 당시의 생태계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20세기 초 남극 탐험 영웅 세 명에 대해 소개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노르웨

등 과학적 연구를 하겠다고 말을 대리고 갔지만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죽었고 장비 등을 운반하느라 극점에 늦게 도착했다"며 "돌아오다 대원들이 전부 사망했고 체력 소진으로 스콧도 사망했다. 그럼에도 스콧은 영국인의 꺾이지 않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어니스트 샬러던은 영국 탐험가로 1909년에 먼저 가려 했지만 실패하고 돌아왔다가 1914년 남극을 횡단하려 했다. 그러나 배가 얼음에 갇혀 좌초하는 바람에 대원 몇명과 함께 구명보트로 사우스 조지아 섬까지 1280km를 항해했다"며 "예상했던 곳의 정반대에 도착해 해발 3000m의 산을 넘어 포경 기지에 도착했지만 구주에 살 만한 배가 없어 칠레로 가서 배를 구했고, 547일 만에 대원 모두를 구조했다"고 설명했다.

생태학교 운영과 관련해 이 시장은 "지구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구를 살리는 뜻으로 실천하는 활동을 응원한다"며 "음식을 쓰레기를 남기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텀블러를 사용하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환경 동아리도 만들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해수면 상승과 사막화로 먹거리가 사라지고 있다"며 "생태학교와 함께 부모님과 환경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실천하기 바란다. 함께 하면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지구를 살리는 주역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강연 후 이 시장은 학생들과 인사하며 사진 촬영에 응하기도 했다. 한 학생의 질문에 대해 신청 쓰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에 대한 개인적인 질문에 대해 "꿈없이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실천하는 수밖에 없다"며 격려하기도 했다.

전국 최초 사제인 '지구'를 생각하는 생태학교는 환경교육사가 상주해 환경교육의 일화, 체계화를 위한 교과·교육과정 연계 환경교육을 하고 있다. 환경교육사는 학교 환경동아리를 지원하면서 환경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와 교직원 환경교육 연수를 통해 학교의 전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고 실천하는 학교 환경교육의 모범 사례를 만들고 있다.

김병삼/기자

# 광주시, 추석맞이 물가안정 캠페인 및 장보기 행사 개최



광주시는 19일 경인동시장에서 추석 명절을 맞아 물가안정 동참 캠페인과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소비 촉진을 위한 장보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시 공직자와 기업인 및 소상공인 단체, NH농협은행 임직원 등 30여 명이 참여해 광주사랑카드도 제수 용품과

추석 명절 선물을 구입해 지역 상권의 활력을 높이고 소비 촉진을 통해 물가안정 분위기를 조성했다.

참석자들은 상인들을 격려하고 상인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농수산물을 원산지 표시 및 가격표시 준수 계도로 협력적이고 건전한 소비를 통한 지역 물가 안정에 동참

해 줄 것을 유도했다.

특히, 시는 물가안정 대책반을 가동해 추석 선상품 및 생활품 등에 대한 가격 동향 및 추수 상황을 점검해 먹거리 물가 부담 완화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이후재 경인시장 상인회장은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구매 금액에 따라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은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사를 진행한다"며 "경인시장을 찾으면서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방세환 시장은 "예년보다 이른 추수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시민의 가계 부담이 크다"며 "시민 여러분들이 전통시장 및 지역 상권을 찾아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고 상인들에게 도움이 주는 모두가 행복하고 중요로 추석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병삼/기자

# 이민근 안산시장, 내년도 예산편성 전 주요 업무 보고 받아

## 이민근 시장 "시민 의견 예산에 반영... 선택과 집중으로 제감할 수 있는 성과 만들 것"

이민근 안산시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산시는 이 시장이 지난 18일 안산시장 상황실에서 개최된 '2024년도 시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을 위한 업무보고회' 첫날 부서로부터 내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이 같이 말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는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공보관 등 직속기관 및 행정안전국 구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3년 차에 걸친 내년도 연간 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신규사업 보고 및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였다.

안산시는 ▲주민과의 대화 ▲주민참여예산 ▲경로당 연두방문 ▲시민과의 가치 토크 ▲현장간부회의 등을 통해 현장에서

시민의 의견을 꾸준히 경청해 왔으며, 이 가운데 예산 편성에 필요한 사업은 이번 업무보고와 토론을 거쳐 반영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시의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시기이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소

르기도 필요한 태도로 생각된다"라며 "앞으로 부서별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가장 시급한 사업부터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최정부/기자



# 인천시, 추석 자금난 해소위해 중소기업에 3백억 규모 자금 지원

## 19일, 2천억 규모 '인천형 특별 경영안정자금 지원'업무협약

인천시가 최근 지속적인 금리상승으로 인해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NH농협은행·신용보증기금과 함께 협을 모은다.

인천광역시는 9월 19일 시청 대접전실에서 NH농협은행 인천본부(본부장 박성일), 신용보증기금 인천영업본부(본부장 이근수), 인천테크노파크(원장 이주호)와 함께 '인천형 특별 경영안정자금 지원'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시는 올해 초부터 1조 2천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시중 대출금리가 높아지면서 재원이 조기 소진되자,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NH농협은행과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혜택은 울리다(Go), 기업은 달리고(Go)를 목표로 특별금리 우대제를 적용해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규모는 총 2,000억 원으로 인천 비내 추수 명절 자금 수요 대응을 위해 연말까지 300억 원, 내년 초 1,700억 원이 지원된다.

특히, 이번 경영안정자금은 기존의 자금지원보다 이자 부담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인천시에서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이자율부터 0.2%~2%p 차등 지원했지만, 이번에는 인천시가 업체당 5억 원 이내에서 이자 0.7%p를 균등 지원하고, 이에 더해 NH농협은행에서는 부동산, 보증서, 신용 등 제권에 따라 1~1.5%p 대출금리를 특별 우대한다. 기업은 1.7%p에서 최대 2.2%p까지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는 셈이다.

또한, 담보없이 부족한 기업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인천영업본부는 농협에서 신용보증기금에 특별출연한 '핵심전략산업 영위기업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금융 지원,의 지원대상 기업일 경우 보증비를 100%, 보증료 0.2%p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업종(관내 공장을 운영 중인 제조기업 또는 제조업 관련업종)을 영위하면서 NH농협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한 기업이며, 자금지원 한도액은 최근 결산 매출액의 1/3과 지원 한도(5억 원) 중 작은 금액이다.

기존에 시, 군·구 등에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아 상환 중이던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지만, 현재 인천시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는 상환 중인 대출금을 제외한 한도 내에서만 대출받을 수 있다.

자원을 원하는 기업은 NH농협은행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받은 후 융자신청서를 첨부해 9월 25일부터 인천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시스템 Biz2OK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박덕수 인천시 행정부시장장은 "고금리로 자금난을 겪는 우리 시 중소기업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NH농협은행에서 대출금리 특별우대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통 큰 결정에 감사드리고, 이번 협약이 상생·협력으로 지자체 최초 중소기업을 위한 사회가치경영(ESG) 실천 및 금융모듈로 구축되길 생각되며, 앞으로 더욱 밀착된 협력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 BIAF2023 기자회견 성황리 개최

## 개막작 '로봇 드림' 비터 36개국 118편 상영



제25회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BIAF2023)이 9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채한 조직위원장, 김경호 집행위원장, 홍보대사 YENA, 김성일 수석프로 그레머가 참석한 가운데 올해 영화제의 방향, 특징 소개와 함께 개막작 및 프로그램 등을 공개했다.

사채한 조직위원장은 "2023년은 부천시 시흥서 50주년과 BIAF 25주년을 맞이하는 매우 의미 있는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BIAF2023은 여느 해보다 흥성하고 활한 구성으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IAF2023을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인사로

기자회견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김경호 집행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КОFICE)과 특별전으로 한-카자흐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맞아 '카자흐 특별전: 별빛의 카자흐', '국제영화제의 미래'라는 주제로 안식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프로그래머와 자그레브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예술 감독 등 각계전문가를 초청하고 심도 있는 강연을 진행하는 학술포럼 등 스페셜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그리고 BIAF2023 홍보대사 YENA에게 크리стал페와 BIAF 마스코트 뿌부 인형을 전달하는 홍보대사 임명식이 있었다. YENA는 "홍보대사 선정 소식을

듣고 많이 기쁘고 설렜다. 제25회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홍보대사가 된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겠다."라고 선정 소감과 각오를 밝혔다.

BIAF2023 주요 상영작 소개에 앞서 홍보대사 YENA는 개막작 '로봇 드림'을 공개했다. '로봇드림'은 특이하게 대사가 없다. 음악과 거리 풍경, 음식과 놀이 문화 등 뉴욕의 정취가 가득하며, 간결한 표현이 돋보이면서도, 어느 순간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사랑스럽고 예쁜 작품이다.

김성일 수석프로 그레머는 개막작 '로봇 드림'을 비롯하여 36개국 118작품을 소개하며, "애니메이션계의 최전선에 서 최고의 작품들이 대거 출품됐다. 선정작에는 디즈니 픽사 애니메이션의 신작부터,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 그리고 내년 아카데미에 선보이게 작품들까지 많이 포함됐다"며 "BIAF의 국제적인 위상과 역량을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성황리에 마친 아시아 유인 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BIAF2023은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대체로 축제를 펼칠 예정이다.

윤용민/기자



# 전남도, '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 5개 기업 선정

### 지역 식재료·식문화 활용 외식산업 4개·기술산업 1개

전라남도는 2023년 신규사업으로 지난 5월부터 추진한 '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 지원사업' 대상 기업 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재)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추진한 이번 사업은 프랜차이즈화를 바라는 지역 우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교육, 전문 컨설팅, 사업과 자금 지원을 통해 역량 있는 전남 프랜차이즈 산업을 양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5개 유망 기업 선정은 공모 접수된 총 43개 업체 중 1차 교육 대상(20개사) 선정부터 2차 컨설팅(10개사), 3차 사업 지원 대상(5개사) 선정까지 세 차례 평가를 거쳐 이뤄졌다.

전남의 우수한 식재료 및 식문화를 활용한 외식산업 분야 4개사와 기술산업 분야 1개사로 구성했다.

외식산업 분야는 ▲전남의 식자재를 활용한 외식업체 '한끼'(강진) ▲지역자원을 활용한 11층의 수제맥주와 푸드페어링된 수제버거를 판매하는 '(유)농업회사법인 수천맥주(순천) ▲백상김과 통목살을 연탄불로 굽는 특색있는 고깃집 '꼭대기연탄'(여수) ▲반자동화 시스템을



를 활용한 담양식 숯불갈비 고깃집 '시골돼지 담양숯불갈비'(화순). 기술산업 분야는 자체 개발 피킹머신을 도입한 스킨아쿠아장 '와니엘'(무안)이다.

김영진/기자

모뎀을 거둔다"고 한다"며 "나아가 해외로 진출하는 글로벌 프랜차이즈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프랜차이즈화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한 기업들은 선정 과정에서 전문적인 교육과 1대 1 컨설팅을 받으며 프랜차이즈화 추진 관련 궁금했던 점이 일부 해소됐다

며 "나아가 해외로 진출하는 글로벌 프랜차이즈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프랜차이즈화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한 기업들은 선정 과정에서 전문적인 교육과 1대 1 컨설팅을 받으며 프랜차이즈화 추진 관련 궁금했던 점이 일부 해소됐다

박종배/기자

# 나주시, 문해교육 어르신 수강생들 상복 터졌다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주관 '2023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서 5명 입상

만학을 통해 읽고 쓰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나주시 문해교육 어르신 참가자들이 작품 공모 시상대에 오른다.

전라남도 나주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3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에서 어르신 수강생 5명이 입상하는 성과를 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시화전은 '문해, 배움은 늘 신기하다'를 주제로 '시화', '엽서쓰기' 부문 작품을 전국적으로 공모했다.

나주시에선 문해교육 '은빛배움터' 어르신 수강생들이 응모한 시화 4개, 엽서쓰기 작품 1개 등 총 5개 작품이 수상, 폐가를 이뤄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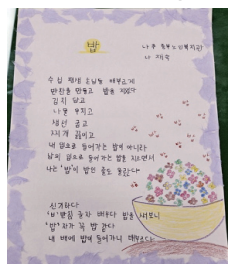
시화부문은 중부노년복지관 소속 나재숙 씨의 작품 '밥(제목)'이 국외교육위원 장상(글아름답), 죽독마을 나영자 씨의 '우리마을 귀화', 박실마를 문명순 씨의 '한글공부', 울머리희망문화학교를 최아임 씨의 '내 이름'이 수상했다.

엽서쓰기 부문에서는 금암마을 이순옥 씨의 작품 '안녕! 거북이'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글아름답)이 수상했다.

시상식은 오는 22일 목포보양스카이

웨딩컨벤션에서 열릴 2023년 전라남도 문해의 달 선포식 및 문해 한마당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시화전 수상작을 포함해 응모 작품 30점을 나주통합학제 평생학습 성과 공유회를 통해 선보일 계획"이라며 "이번 시화전을 계기로 나이와 여건 제한 없이 누구나 배움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평생학습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민/기자

# 함평군, 농산물 생산자 공동체 육성을 위한 '공유농장' 분양 완료

전남 함평군은 20일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공유농장 운영을 위한 입주 계약을 최근 체결했다"고 밝혔다.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지역 농산물 생산자를 조직화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공유 플랫폼 조성 공모사업으로 2024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학교연 사거리 일원에 위치한 공유농장은 학교급식 및 로컬푸드직매장에 납품하는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하우스, 1동 당 약 100평 규모의 시설하우스 11동이 조성되어 있으며 함평군 신활력플러스 사업단에서 운영 및 관리한다.

군은 이번달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총 10명의 입주자를 선발했으며,

공유농장 입주자들은 2024년 12월 말까지 자신이 신청한 농작물인 옥수수, 열무, 상추, 취나물 등을 재배해 생산량의 50% 이상을 학교급식 및 로컬푸드직매장에 의무 납품해야 한다.

공유농장을 통해 세는 관내 생산이 부족한 신선채소류를 공급하고 로컬푸드직매장 등에 납품 및 판매하는 순환체계 구축과 중소농들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의 함평군은 "공유농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전략으로 소비자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며 "함평군 공유농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 완도군, 2023 전남 도시숲 '우수기관 선정'

### 완도수목원 명품 가로수길 장려상 수상

완도군이 전라남도 주관 '2023년 도시숲 우수 사례' 공모에서 가로수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전남도는 '도시 숲 우수 사례' 공모를 통해 역사, 문화, 정관적 가치가 있는 숲을 산림 문화자산으로 육성하고자 생태적 건강성과 사회·문화적 가치 등의 기준이 잘 발휘된 도시 숲 및 가로수를 발굴하고 있다.

완도군은 이번 공모에서 2018년 조성한 '완도수목원 명품 가로수길' 장려상을 수상했다.

'완도수목원 명품 가로수길'은 국비 1억 9천만 원을 포함한 총액 8천만 원을 투입하여 1.1km 구간에 완도의 5대 난대 수종 중 하나인 완도호랑가시나무

와 흉가시나무를 식재해 특색 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했다.

특히 해당 구간은 국립난대수목원인 조성된 완도수목원 진입로로 나무 식재로 기성된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차단, 인진 펜스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박재재 산림휴양과장은 "앞으로도 지역 특산 난대 수종을 식재하여 차별화된 도시 숲을 조성하고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쾌적한 환경 제공으로 군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완도를 집결 구간의 '완도호랑가시나무길'이 산림청의 모범 도시 숲으로 선정된 바 있다.

양영을/기자

# 남원시, 추석 명절 정감 활력이 넘치는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최경식 남원시장은 9월 19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생·융남시에서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공무원과 자원봉사단체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장보기 행사는 소비 위축으로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목적으로 매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남원시를 대표하는 시장인 공생·융남시장에서 진행했다.

또한, 지난 1일 행사 오는 27일까지 27일간 4개 전통시장(공생·융남·운봉·인월)에서 공무원 등 약 1천여명이 제수용품 및 명절 필요물품 등을 구입하

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상권의 침체와 매출 감소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해마다 이용하는 고객에게 즐겁고 있는 전통시장에 대해 다각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형상점 등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택배무류서비스(20kg이상, 2만원이상), 와글와글시장을 지원, 문화행사,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등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가겠다"고 전했다.

이남출/기자



# 송기인과 함께하는 추석맞이 '진도도요민속여행' 특별공연

### 천개지문(천공), 진도북놀이, 화답 등 다양한 공연 선보일 예정

진도군이 오는 30일 오후 2시 진도항도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가향'을 주제로 추석맞이 진도도요민속여행 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추석을 맞아 종합창작주출악인 '천개지문(천공)', '진도북놀이', '추석명절 특별공연인 '화답' 등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화답'은 우리 고 출신 가수 송기인이 출연해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화답하는 의미로 관중들과 함께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도도요민속여행은 지난 1997년 4월 제1회 공연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986회 공연에 39만 1천여명의 관객이 관람했다.

지난 2018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한국관광의 밤'에 선정,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 공연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진도도요민속여행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민속문화예술축제인 진도군을 널리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추석을 맞아 진

도를 찾는 귀성객들과 관광객들이 보배로운 진도만의 맛과 흥을 느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 순천시, 계절의 변화를 담아낸 '뜰아트' 시선 집중

### 작품성과 스토리텔링으로 순천만 들녘의 '가을'을 접수하다!

순천시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연계사업으로 박람회 기간적 범위 확대와 관람객을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연출한 흥나·학동 들아트(는 그림)가 계절의 변화를 아름답게 담아내고 있어 박람회장과 순천만을 찾는 관람객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 흥나·학동 들아트(는 그림) 농촌경관과 어우러진 작품성으로 호평 받으며 순천시의 상징인 흑두루미가 순천만의 가을을 담은 '뜰아트' 시선 집중을 담당하고 있다.

▶ 들아트 SNS인스타그램 '사진 공모전' 이와 연계하여 순천시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함께 들아트를 홍보하기 위해 인스타그램을 통한 그림 사

는 스키야쿠보 운행구간 4.5km, 7개소에 걸쳐 연출된 들아트는 순천만을 방문하기 위해 스키야쿠보를 탑승하는 방문객들에게 농촌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아름답고 웅장한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어 관람객들로부터 그 작품성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 주제를 담은 작품과 순천만이 한 편의 드라마(이야기)로 탄생 순천시의 상징인 흑두루미가 '순천만'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주제(테마)로 7개소에 걸쳐 연출된 작품에 담아낸 들아트는 한 편의 드라마처럼 순천만의 볼-가을을 이야기하고 있어 보는 이들의 감성을 이끌어 내고 있다.

박람회 이후 순천시의 핵심사업의 하나인 웰튼(에니메이션)으로 이야기를 풀어낸 이 작품은 2023순천만국제정

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으며 천연기념물 제228호인 흑두루미가 함께 행복 여행으로 안내하고 있어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흑두루미와 함께 떠나는 행복 여행"은 2023정원박람회 열병식을 시작으로 낙낙장승 소나무의 개개와 흑두루미의 고결함, 순천시 서브 브랜드 비상(올라 오세요.)과 순천만의 일출·일몰을 담아 흑두루미의 시간을 표현한 순천하세이, 이 작품을 순차적으로 안내하고 있어 순천만과 함께 한 편의 드라마를 완성시키고 있다.

▶ 들아트 SNS인스타그램 '사진 공모전' 이와 연계하여 순천시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함께 들아트를 홍보하기 위해 인스타그램을 통한 그림 사

진 공모전을 이달 30일까지 진행중에 있다. 인스타그램 #순천만으로가는길 공모 검색을 통해 시민들이 업로드한 들아트 사진과 영상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인스타그램 들아트 사진(영상) 공모전은 게시물이 대한 '좋아요'가 많은 순으로 평가해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인스타그램에 사진과 영상이 많이 게시돼 정원박람회와 순천만을 방문한 관람객들과 함께 작품이 공유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승준/기자



# 전북도, 총체벼로 논타작물 활로 찾다

## 총체벼 생산기반 확충, 고품질 사료화를 통해 경종, 축산농가 상생 방안 마련

전북도는 20일 농업 전북지역본부에서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위원회 농업소득분과와 친환경축산분과 위원, 농가, 공무원 및 전문가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체벼 육성체계 구축을 통한 경종·축산 농가 상생 방안'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전략작물직불제"를 활용한 하계 조사료(총체벼)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통해 국내산 조사료 자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 사료비 절감과 함께 쌀 수급 안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포럼 주요 내용은 ▲ 벼·총체벼 농가소득 차액 보전 및 생산기반 확충 ▲ 조사료 품질 균일화 ▲ 섬유질배합사료(TMR) 공정을 통한 고품질 사료 ▲ 조사료 유통·소비 활성화 방안 등이었다.

도는 논에 하계 조사료인 총체벼를 재배 시 1헥타르당 430만원을 전략작물직불제로 지급, 조사료사일리지 제조

비 지원 등 조사료 생산 확대를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조사료인 총체벼는 2022년 50헥타르에서 2023년 470헥타르로 생산면적이 940%로 확대될 계획이다.

이날 발표자로 참석한 서울대 김종근 교수는 "농업과 축산분야가 총체벼 육성을 위해 업무 칸막이를 제거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는 모습에 너무 뜻깊게 생각한다"며, "오늘 논의되는 고견들을 통해 현실적인 정책적 대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국내산 총체벼 생산기반 확충과 고품질 사료화를 통해 경종농가와 축산농가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것"이라며, "도, 시군, 농가를 비롯해 많은 전문가가 함께한 만큼 농축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일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남훈/기자



# 구례군, 기존 외 4개소 공공하수처리장 기술 진단·용역 시행

## 기술진단을 통한 시설개선으로 심정강 수질 보전 및 환경오염방지 위해 추진

전남 구례군은 공공하수처리장의 처리 효율 향상과 방류수역의 수질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3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기존, 측정, 광의, 전선, 내곡 공공하수처리장 5개소 용역 하수관로 39km에 대한 기술 진단 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진단 내용은 유입 오염물질의 특성 조사,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 진단, 시설 문제점 및 효율화 방안, 시설의 유지관리

방안 등 종합적인 점검 등이다. 군은 이번 기술 진단을 통해 공공하수처리장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적극적인 개선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구례군 관계자는 "기존 외 4개소 공공하수처리장 기술 진단은 악취 민원 해결, 토양오염 방지, 하천 수질 개선 등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현/기자



# 화순군, 화순탄광 역사를 담은 전시회 개최

## 118년의 역사 속에 화순경제를 이끈 화순탄광을 이야기하다



화순군은 오는 25일부터 화순탄광의 역사를 담은 '화순탄광 118년의 기록'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화순은 1905년, 우리나라 최초의 탄전이 발견됐으며, 1930년대부터 본격적인 채탄을 시작하며 화순탄광 일대에 광산촌을 이루는 등 1980년대까지 탄탄대로를 달리며, 태백·삼척·영월과 함께 전국 4대 탄광으로 손꼽히기도 했다.

그러나 주 에너지원의 변경과 정부 정책으로 인해 사양길에 접어들었고 2023년 6월 30일 화순탄광이 폐광되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이에 화순군은 화순탄광의 118년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전을 개최하여 군민들과 함께 폐광의 아쉬움을 달래고자 한다.

전시회는 오는 25일부터 10월 6일까지 화순군민회관(화순 시내) 남산출과 화순군청 6층 로비에서 전시회를 개최한다.

전시회 사진 주제는 고풍 황제가 통치하던 시절부터 시작되는 '화순의 시간과 탄광', 깊은 통로에 느껴지는 채탄의 현장 '광부의 몸짓', 인더부스를 통해 그들의 인생을 들여보는 '광부의 시간' 등 3가지로 구성했으며, 이와 함께 그간의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는 '화순광업소를 기록하다'와 화순광업소에 정초를 바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화순광업소를 기억하다'의 영상도 상영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는 호남 최대 탄광이었던 118년 동안 지역경제를 이끌었던 화순광업소의 기록을 발굴·기록하여 주민들에게 지역의 옛 모습을 돌아보고 추억할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주민들이 전시회를 찾아 탄광의 역사에 대해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소중한 기회가 될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경호/기자

# 목포에서 원동컵 국제범선대회 인소어 레이스 개최

## 19일부터 22일까지 원동컵 출전 해의 요트 선수단 목포 방문

2023 원동컵 국제범선대회 인소어 레이스가 오는 21일 평화광장 수역에서 펼쳐진다.

원동컵 국제범선대회는 중국 칭다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목포 구단을 연결하는 3번의 요트소어 경기(남은 바다를 건너는 장거리 경기)와 각 도시에서 개최하는 인소어 경기(해안에서 펼쳐는 단거리 경기)로 구성되며, 중국 칭다오 체육문화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국제대회이다.

대회 중국 칭다오에서 지난 6일 시작해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 오는 27일까지 개최된다.

이번 목포에서 열리는 인소어 레이스는 블라디보스토크를 경유해 개최되는 것으로, 7개국(중국, 일본, 러시아, 프랑스, 뉴질랜드, 한국 등) 7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열띤 대결을 펼칠 예정이다. 경기는 칭다오에서 마무리된다.

인소어 레이스란 해상에서 펼쳐지는 비교적 단거리 경기로서 가까운 해안에 배표를 띄우거나 이를 반환할 때 레이스를 펼쳐 승위를 매기는 경기 방식이다.

바다를 가르며 질주하는 요트들의 점진 레이스가 평화광장을 찾은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이색적인 볼거리를 선사할 것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번 국제경기 개최로 칭다오시와 목포시의 친선을 도모하고 해양관광도시로서 위상을 높이는 명사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박종배/기자



# 강진군과 함께 아동정책을 만들어갈 어린이를 찾습니다

## 강진군 아동참여위원회 모집 안내

강진군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함께할 '강진군 아동참여위원회 위원'을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강진군 아동참여위원회는 어린이들이 아동과 관련된 정책의 당사자가 '나(아동)'임을 인식하고, 아동의 의견이 반영된 아동·청소년 정책이 개발, 추진,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강진군 아동을 대표하는 기구이다.

초등학교 재학 나이 10명의 아동들로 구성된 아동참여위원회는 강진군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제시와 정책설계 등 역할을 한다. 아동정책 뿐만 아니라 아동과 관련된 강진군의 모든 사업에 참여기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강진군은 앞으로 참여기구 활동을 통해 어린이날행사·정치축제·갈매축제·4대 물놀이장 등 시설 및 운영을 비롯해 아동관련 사업들에 대한 좋은 점, 아쉬

운 점, 개선할 점 등 의견을 듣고 어린이 시각으로 가정의 아동정책이 실현되는 방향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임준형 군민행복과장은 "아동을 '보호대상 수혜자'라는 과거의 인식에서 벗어나 아동이 주체권과 자율권을 갖고 아동이 원하는 강진을 직접 그려나가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 아동참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많은 어린이들과 부모님의 관심과 참여 부탁한다"고 말했다.

아동참여위원회에 참여한 어린이는 강진군 군민행복과를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되며, e 메일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강진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궁금한 사항은 군민행복과 아동친화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윤호/기자



# 장흥군 하늘빛수목정원, 가을을 수놓는 향기축제

## 가을밤 낭만 버스킹 공연행사 진행

장흥 하늘빛수목정원에서 금목서의 향기를 담은 가을향기축제 개최된다.

오는 9월 29일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 향기축제 및 가을 단풍꽃축제가 군민들의 기대를 하나로 모으고 있다.

향기축제는 29일 개막식(오후 3시)으로 시작을 알린다. 축제에 축하하는 문화예술공연 및 정민 음악회를 시작으로 하늘빛수목정원 풍경 관람, 편백술 맨발걷기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하늘빛수목정원은 꽃무릇, 천주니덕 운동, 국화, 핑크몰리, 파파스 등이 식재되어 있어 가을 정원의 그윽한 정취를 느낄 수 있다.

또한 수목 심목 심기, 정민 속 클럽핑장, 가을밤 낭만 버스킹 등 여러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어 특별한 추억을 만드는 데 안성맞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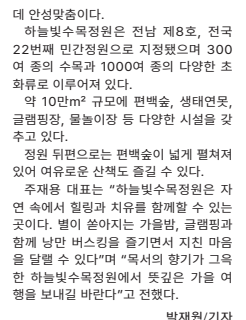
하늘빛수목정원은 전남 제8호, 전국 22번째 민간수목원으로 지정됐으며 300여 종의 수목과 1000여 종의 다양한 초화류로 이루어져 있다.

약 10만㎡ 규모에 편백술, 생태연못, 클럽핑장, 물놀이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정민 뒤편으로는 편백술이 넓게 펼쳐져 있어 여유로운 산책도 즐길 수 있다.

주재용 대표는 "하늘빛수목정원은 자연 속에서 힐링과 치유를 함께할 수 있는 곳이다. 별이 쏟아지는 가을밤, 클럽핑과 함께 낭만 버스킹을 즐기면서 지친 마음을 달랠 수 있다"며 "목서의 향기가 그윽한 하늘빛수목정원에서 뜻깊은 가을 여행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재원/기자



# 신안군 '사단법인 대한올리브협회 창립총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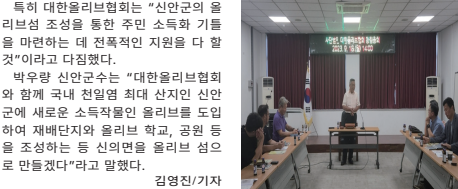
신안군은 지난 18일 10명의 발기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단법인 대한올리브협회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한올리브협회는 올리브 산업과 올리브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개발과 판매촉진을 지원함은 물론 지역경제와 매력 있는 농촌 만기구에 공헌하고, 생산자

특히 대한올리브협회는 "신안군의 올리브산업 활성화를 위한 주안점"을 마련하는 데 전폭적인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대한올리브협회와 함께 국내 천원일기 최대 산지인 신안군에 새로운 소득작물인 올리브를 도입하여 재배면적과 올리브 학교, 공익을 조성하는 등 신의원을 올리브 섬으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장흥 하늘빛수목정원 가을 향기축제

가을 9월29일(개막식/오후3시)~11월말

목서의 향기 그윽한 장흥 하늘빛수목정원 가을여행!

신안 방문객 환영 상품권 2,000 원(농산물 구매금 2,000 원)을 선착순 100명에게 증정합니다.

문의: 060962-2000 | 홈페이지: www.hallbts.com

상사차 (꽃무릇) | 팔미스그라스 | 글썬서수목서 | 가을밤 낭만 버스킹 | 가을 단풍여행

# 밤방 수사트요 인도네시아 상원의장 일행 경북도 방문

## 경북도, 대구은행 인도네시아 중고 컴퓨터 기증식 가져



경북도는 밤방 수사트요 인도네시아 상원의장 일행이 19~21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경북도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기념하고 양 지역 간 경제, 인

문단은 21에는 경주 불국사, 석굴암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진 후, 김성학 경주부시장을 만나 쌍방향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방문단은 한수원 본사를 찾아 원자력 사업 관련 상호협력을 위한 의견교환과 협력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이달의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 인구 4위의 젊은 노동력과 풍부한 자원을 가진 잠재력이 큰 국가다. 양 국가 및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인적-문화적 교류가 필수"라고 말했다.

이날 "이번 밤방 수사트요 인도네시아 상원의장 일행의 방문은 서로를 이해하고 교류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한층 심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지난 50년간 다져온 두터운 관계를 발판 삼아 앞으로의 50년은 양국이 경제와 문화강국으로 승승장구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부산시, 한노총, 국제노동기구(ILO)에 2030세계박람회 유치지원 서한문 발송

## 9월 18일 한노총 김동명 위원장, 국제노동기구(ILO) 질베르노보 사무총장에 서한문 보내



부산시는 지난 9월 1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동명 위원장이 전 세계 187개 회원국이 가입한 국제노동기구(ILO) 질베르노보 사무총장에게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 지원을 당부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는 세계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생활 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유엔 전문기관으로, 1919년에 설립됐다. 현재 총 187개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1년 12월에 152번째로 가입했다.

이번 서한문 발송은 지난 9월 1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및 전국 지역별 의정 일행이 부산시청을 방문해 발표한 '2030부산세계박람회 개최지원 공동성명'을 구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한문에는 오는 11월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의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국 결정을 앞두고, ▲부산시의 개최적

합성 ▲세계박람회 개최에 대한 한국노동의 노력과 다짐 ▲대국민 영합 홍보 ▲유치지원 당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2030세계박람회 개최국 결정에 대한 한국노동의 다짐(노동자 안전과 기본권, ILO 노동기준 준수 등) ▲엑스포 개최지로서 부산시 역량 홍보(문화도시, 에이펙(APEC) 등 국제행사 개최 경험, 정보통신기술(ICT) 등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우수 도시 등)과 함께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오는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세계박람회 개최지로 부산이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당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박정호 부산시장은 "103만 노동자단체인 한국노동이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공동성명 발표에 이어 187개 회원국이 소속된 국제노동기구에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요청 서한문을 발송한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한국노동 김동명 위원장의 서한문에 따라 전 세계 187개 회원국을 보유한 국제노동기구가 세계박람회 개최지로 부산을 지지한다면 우리의 2030세계박람회 유치가 큰 믿을 것"이라며, "노동계의 이러한 지지에 보답하기 위해 세계박람회를 반드시 부산에 유치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희태/기자

# 체험형 '삼삼한 대구여행' 팝업스토어 운영, 스타필드 하남에서 체험하고, 가을여행은 대구로 오세요

## 대구 3대문화권 특별전시관 운영 (9월 18일 ~ 30일)

대구광역시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대구의 3대 문화 관광자원을 중심으로 대구의 다양한 관광콘텐츠 홍보를 위해 스타필드 하남에서 '삼삼한 대구여행' 팝업스토어를 선보인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지난 2017년부터 다년간 추진되어 온 대구 3대문화권 관광진흥사업의 총괄하여 '삼삼한 대구여행'이라는 브랜드 콘셉트로 기획되어 대구의 다양한 여행 정보를 체험형 콘텐츠로 색다르게 보여준다.

경기도 하남시에 소재한 스타필드 하남 1층(센트럴 아트리움)에서 9월 18일부터 추석 연휴인 30일(토)까지 13일간 운영되는 홍보관은 체험존, 전시존, 포토존으로 구성되어 남녀노소 누구나 자유롭게 각 구역을 둘러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먼저 체험존에서는 군위를 포함한 대구의 여행지도도를 배경으로 디퓨블릭, 대구여행 마그넷과 아크릴보드 등 만들기 체험 등이 선착순으로 운영된다. 특별전시관 전례를 둘러본 대구 스타필드 푸드 프롬프트 3개의 미션을 모두 수행하면, 삼삼한 대구여행을 기념하는 인센티브 사인을 촬영하고, 커피의 도시 대구를 대표하는 커피(국내 바리스타 1세대 '커피명가')를 맛볼 수 있다.



전시존에서는 대구 여행자의 낮과 밤의 모습을 각자의 시각으로 스케치한 '대구여행 스케치 공모전' 다양한 수상작품을 감상할 수 있으며 대구 관광 홍보영상을 관람할 수 있다.

포토존에서는 가을 풍경이 아름다운 광

산에 작년부터 새로이 단장한 '앞산 전망대'의 달토끼, '동성로' 스파크랜드 등을 배경으로 사진을 촬영할 수 있어 이목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올해 7월부터 대구광역시가 편입된 구원군의 인기관 광시 '회백역'도 배경으로 함께 전시되어

있다.

이와 함께 대구여행에 필수품인 대구 관광 애플리케이션 '대구트립' 이용과 SNS 게시 팔로우 인증 이벤트를 통해 호텔 숙박권, 대구 관광 굿즈 등의 푸짐한 경품을 받을 수 있다.

강성길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광부장은 "유동인구가 많은 타 지역의 특별전시관 운영을 통해 팝업스토어 형태 홍보관의 재미있는 체험과 이벤트 프로그램으로 대구 지역을 방문할 잠재 여행객들을 유치하고 대구를 홍보할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여행 소비자들을 찾아가는 마케팅을 다양화하여 대구의 숨은 매력을 알리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청송군의회의 의원연구단체, '청송 관광 활성화 연구회' 중간보고회 개최

청송군의회의 의원연구단체인 '청송관광 활성화 연구회'는 지난 18일 청송군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청송 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서는 새로운 소비자 발굴, 타지역과 차별화된 콘텐츠, 문화관광벨트(달인정, 채유형), 관광 상품개발 및 액티비티 프로그램 개발, 이미지 제고 및 관광지원 홍보 등의 전략안이 제안됐다.

연구단체 대표인 심상휴 의원은 "청송 관광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근수/기자

#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정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획득



경주시시설관리공단은 교육부와 인사혁신처가 공동인증하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인증 운영 대행하는 '2023년 공공부문 인적자원 개발 우수기관(Best HRD)'으로 처음 인증받았다고 19일 밝혔다.

'Best HRD'는 Best Human Resources Developer의 약자로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능력 중심의 공정한 인사제를 관리하고 재직자들에게 지속적인 역량 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우수기관 및 기업에 대한 심사평가 후 인증하는 제도이다.

인증받은 기관은 3년간 유효한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받고 인증기간 동안 정기 근로감독 면제, HR컨설팅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정태용 이사장은 "인적자원 개발 우수기관으로 처음 인증 받은 것을 계기로 인사 및 교육관리 분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분야에서 전국의 다른 공단보다 한발 앞서 나가는 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태용/기자

# 울진군, 2023년 예취기 합동 수리 봉사 순회 성료



울진군은 지난 11일을 끝으로 한수원(주)한울본부, 울진군공무원노동조합, 울진군 공공노동조합협의회와 합동으로 진행한 10개 읍·면을 직접 찾아가는 예취기 합동 수리 봉사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예취기 합동 수리 봉사 순회는 4개 단체 26여 명의 봉사자가 참여했다.

2005년부터 시작하여, 매년 평균 1,500대가량을 정비, 점검했다. 올해는 작년보다 60여 대 많은 1,547대의 예취기를 수리, 점검 및 정비하는 성과를 올렸다.

추석 전 예취기 사용 빈도가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이번 수리 봉사도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예취기를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며, 안전 교육을 병행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예취기 합동 수리 순회 기간동안 안전사고 없이 주민들의 불편 해소로 최선을 다한 봉사자 모두에게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장문화/기자



# 문경 다자녀 생활장학금 신청하세요

## 10월 4일부터 10월 1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재)문경시정학회는 다음 달 4일부터 18일까지 2023년 문경 다자녀 생활장학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문경 다자녀 생활장학금은 선발 공고일(2023. 9. 18.)기준 부모 또는 모와 3명 이상의 다자녀가 문경시에 1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가정에 지원한다. 지원대상과 달라진 점은 다자녀(3명 이상) 중 1명 이상 자녀의 나이를 만18세 이하로 제한했던 것을 완화하여 학생 나이와 관계없이 선발조건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은 매년 선발하여 각각 30만원, 50만원, 100만원을 지급하며 대학생은 재학기간 내에 1회 선발하여 2~3년제는 200만원, 4년제는 300만원을 지급한다.

9월 18일부터 9월 29일까지 문경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중이며, 10월 4일부터 10월 1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최종 선발은 11월 중 (재)문경시정학회 임시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문경시정 홈페이지 게시 시 예정된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장학금은 12월에 보호자 계좌로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재)문경시정학회 신현국 이사장은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꾸준한 관심과 지원으로 우리 지역 학생들이 창의적이고 즐거운 교육 환경 속에서 개인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제24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도민이 행복한 책임복지 경북" 사회복지대회 개최

##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들의 정서 치유와 격려의 시간 가져



경북도는 "도민이 행복한 책임복지 경북"을 슬로건으로 제24회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여 19일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2023년 경상북도 사회복지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학동 경북도 행정부지사, 최태원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성학 경주부시장 등 사회복지 관련 기관 단체장을 비롯한 350여 명의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가 참여했다.

사회복지사로 시작된 45여 년간 사회복지 현장에서 확고한 복지 철학으로 정신장애인의 편견 해소 및 지역사회 복구에 공헌했다.

특히, 정신요양시설인 천봉산요양원을 설립해 천봉산요양원장 및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장으로 정신건강사업 정책 수립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이해 교육, 다양한 봉사활동 등 정신건강 분야에 이바지한 공이 탁월하다.

부대행사로 경상북도 장애인생산품 전시회, 경북 권역푸드뱅크 등 부스 운영을 통해 장애인 직업재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을 진행했으며, 행사 참가자들이 천도회 역사 문화도시 경주에서 2025 APEC 정상회의의 경주유지를 염원하는 지프 선전도 했다.

김학동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사회복지인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사회복지대회를 통해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결속해 도민이 행복한 책임복지 경북을 실현하여 지방시대 표준모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 예천 불교계, 스님들과 신도들의 자비나눔 실천

## 지난 2일 합동 천도제 봉행 후 남은 금액 237만 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전달

예천군에서는 지역불교계가 18일 군청을 찾아 김학동 군수와 간담회를 갖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했다.

예천불교사암연합회와 예천불교연합신도회는 지난 2일 수해 희생자를 위한 합동 위령 천도제를 위해 지역 스님들과 신도들이 모은 3,500만 원 중 천도제 봉행 후 남은 금액 237만 원을 모두 성금으로 전달하고 불교신앙단체인 예천불교정법회에서도 회원들이 모은 285만 원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전달했다.

예천불교계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재민을 위로하고 피해복구를 돕기 위해 스님들과 신도들이 성금을 모금했으며, 김천면 법림리와 대피소에 긴급 구호물품도 기부했다.

예천불교사암연합회 현종스님과 예천불교연합신도회 안희운 회장은 "수마에 휩쓸려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 2명이 조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희망하며, 피해 주민들이 상처를 받고 빨리 회복해 다시 평안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천도제를 봉행하고 남은 금액을 성금으로 기탁하게 됐다."고 전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너무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에 원력을 다해주시는 불교계에 감사드리며, 기탁해주시는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한편, 예천불교계는 지난 9월 2일 예천문화체육센터에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예천지역 희생자 15명과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장병의 극락향상을 발원하고 실종자 2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기도를 해 '2023년 계묘년 합동 위령 천도제'를 봉행했다.

윤근수/기자

# '정을 나누고 화합에 웃다!' 안동 북문시장 가을맞이 축제 개최

## 오는 20일, 21일 고흥시장 행복어울림마당, 22일, 23일 막걸리 축제 열어

2023년 고흥시장 행복어울림마당

## 안동 북문시장 소비진작 할인 행사

2023년 9월 20(수)-21(목) 10:00-16:00

### 제일행사

**식품 DIY 천연가습기 만들기**

행사기간 중 영수증 합산 20,000원 이상 구매고객 대상으로 체험 참여 가능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계좌로결제)

### 소비진작유공

**안동 북문시장 상인의 회원권**

상인의 회원권 10,000원

### 홍보물품

행사기간중 시장방문고객께 물티슈를 드립니다 (소진시까지)

영수증 합계 35,000원 이상 구매시 쿠폰 10,000원

1번 1회에 한함 (영수증 소지필수)

경상북도 GEM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안동북문시장상인회

소비 진작을 도모할 목적으로, 행사 기간 중 영수증 합산 20,000원 이상 구매고객은 선물 DIY 천연가습기 만들기 체험을 무료로 할 수 있다. 또한, 9월 10일부터 21일까지 기간 중 영수증 합계 35,000원 이상 구매 시 북문시장 회원권 10,000원 쿠폰을 받을 수 있는 쿠폰 10,000원을 받을 수 있다.

관내 어린이집 3개소에 예코백 만들기 키트와 시장 상품권을 미리 지급하고 행사 기간 중 북문시장에서 정보기회를 하는 등 대형마트에 익숙한 어린이들에게 전통시장을 체험하고 즐거운 이미지를 기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북문시장 막걸리축제'는 9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추억의 막걸리와 전통시장에 정을 나누고, 화합에 웃다'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북문시장 막걸리축제는 침체한 북문시장의 재도약을 목표로 2018년 북문시장 일원에서 처음 열렸으며, 코로나 19 여파로 중단됐다가 올해 4년 만에 열린다.

이번 행사는 22일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지역 생산 막걸리를 소개하는 알리는 홍보를 비롯한 1,000원 판매행사, 특산품 판매, 노래자랑, 초청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펼쳐진다.

특히, 지역의 막걸리를 비롯하여 닭불고기, 장터국밥 등 북문시장에서 개발한 특화메뉴를 시장 상인들이 직접 준비하여 저렴하게 판매하는 먹거리 부스가 축제 기간 중 상시 운영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상인들이 주체가 되어 북문시장을 활성화하고자 기획한 축제로 시민과 관광객을 환영하는 축제의 장을 열 것"이라며 "시장 상인들이 만들어낸 추억의 맛으로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전통시장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영덕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종료

영덕군은 지난 2009년부터 운영한 20톤/일 급의 자체 소각시설이 내구 연한을 다할에 따라 오는 28일을 기해 운영 종료로 했다.

이에 오는 11월 중순까지 환경자원관리센터내 쓰레기 집하장인 적환장 시설을 완료하고 같은 달 하순부터 관내에서 수거한 모든 생활쓰레기를 영남북도에서 운영하는 안동시 소재 광역소각시설 맑은누리파크로 반입할 예정이다.

또한 영덕군은 소각시설 운영 종료로 인해 별도의 주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가정에 발생하는 다량의 폐기물은 기존의 방식대로 수유로를 납부한 후 환경자원관리센터 내 매립장으로 반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맑은누리파크에 쓰레기 반입

시에는 불연성 폐기물과 마대는 반입할 수 없으며 수거한 생활쓰레기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파쇄를 하지 않고 운반차량에 적재하므로 가정에 쓰러 쓰레기 배출할 때는 종량제 통투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김정원 환경위생과장은 "쓰레기 배출 시에는 마대 사용을 금해주시고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해 쓰레기를 최소화함으로써 우리가 살아가고 후손에게 물려줄 환경을 아끼고 보호할 수 있길 바란다"며, "생활쓰레기 배출요령에 맞지 않는 불법투기는 지속적으로 단속해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찾아가는 대구자치경찰 현장 소통 설명회 열어

## 통장들과 '대구시 안전'을 주제로 소통·공유의 자리 함께해



9월 19일 오후 3시 30분 대구 동구 청 대회의실에서 박동군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사무국장)이 동구 통장연합회 회원 40여 명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소통 설명회는 '알기 쉬운 자치경찰 이야기'라는 주제로 안전과 범죄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통장들에게 자치경찰의 현황에 참여하는 방법과 공동체 치안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이상동기 범죄(일명 문자야 범죄)로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소개하고 공휴일 범죄에 대한 지역민들의 불안감 완화와 자치경찰 인지도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2021년 7월 자치경찰제 공식 출범 이후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 통우회(통장들 모임), 자율방범대 등 시민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면 직접 찾아가 자치경찰을 알리고 소통해왔다.

박동군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지방자치 시대는 지역의 통반장들이 중요하다. 자치경찰도 마찬가지다. 통반장들은 동네 곳곳에 사정을 속속들이 알면서 행정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든든한 안전 지킴이 역할을 수행하며 취약계층 지원은 물론이고, 독거노인, 고립된 은둔 청년 등을 방문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며, "우리 지역에는 이웃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곳이 많다. 특히 1인 가구와 고령층이 증가한 가운데 통반장의 업무가 복지

와 돌봄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여러 가지 성과를 내고 있다. 대구시 여성가족과와 협업을 주저 안전을 위한 ▲세이프-홈(Safe-Home) 지원사업과 대구서부경찰서에서 학생들의 등하굣길에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 상황을 손쉽게 신고하고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안심버스 승강장 설치, 대구강북경찰서의 ▲샛별로 프로젝트는 지역의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맞춤형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사업으로 선정돼 특별보수세 1억 원을 지원받았다.

아울러 지난 4월 경찰청이 처음 시행한 ▲2023 자치경찰 수요기반 지역문제 해결 R&D 사업에 최종 선정돼 2027년까지 4년 9개월간 국비 23억 7천 5백만 원을 포함 최대 32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아 지역 특성 및 치안 수요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R&D 사업 추진으로 자치경찰과 과학치안 역량 강화를 위한 마라톤을 내딛었다.

윤근수/기자



# 영양군, 대한민국김치협회 회장 이하연 홍보대사 위촉

영양군은 지난 18일 제15회 영양고추 H.O.T Festival 행사에 열리는 서울광장에서 대한민국김치협회 회장 이하연 전통식품명인을 영양군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하연 대한민국김치협회 회장은 "예를 선택하기로 전통식품명인 58호에 지정되어 김치와 한식요리에 대한 인식과 가치를 높이기 위해 중국·일본 등 해외는 물론이고 유튜브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위촉식은 제15회 영양고추 H.O.T Festival 행사 개막 전 '김치명인과 고추 이야기'란 코너 촬영 이후 개최됐으며, 이하연 명인은 앞으로 4년 간 영양군 지역특

산물 및 축제 홍보활동을 하게 된다.

이하연 명인은 "천 년 고추 품질을 자랑하는 고추의 고장, 영양군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김치협회회원으로서 의미가 더 깊다."라며 앞으로 "지역 축제·문화·관광 자원을 홍보하고, 군 이미지 제고와 위상을 높이는 데 힘을 쏟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오도창 군수는 위촉식에서 "이하연 명인은 대한민국김치협회 회장으로서 김치의 수장량제인 영양고추를 대외적으로 홍보할 책임과 사명을 지니고 계시게 됐다."라며 "앞으로 영양군과 협력하여 활발한 홍보활동을 펼쳐 주시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충남도, 경제상황 점검 및 대응책 논의

## 도, 올해 제2차 경제상황관리회의 열고 글로벌 공급망 대응 등 점검



충남도는 1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전청시 정무부지사와 유재룡 산업경제실장을 비롯해 도와 15개 경제 유관기관·단체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제2차 경제상황관리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충남 경제상황 점검 및 공급망 관리품목 선정과 관찰(모니터링) 결과 보고에 이어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방안기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경제동향분석센터장은 경제상황 보고서 중 남도는 경기 하강기가 지속되고 있으나,

전국 대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물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일부 주력품목의 수출물량 회복, 중소기업 시설 투자 움직임 등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며, 점진적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하는 것으로 봤다.

이어 임병철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경제동향분석센터 전임연구원은 △공급망 위기 관련 최근 이슈 △충남 공급망 대응 데이터 분석 △이차전지 산업과 도내 기업 현황 순으로 '충남 공급망 관리품목 선정과 관찰(모니터링) 결과'를 보고했다.

도는 앞서 지난해 공급망 문제가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해지면서 자체적으로 공급망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집중관리품목을 선정한 바 있다.

임 전임연구원은 "그동안 대내·외 환경변화가 있었고, 시기적으로는 1년이 넘은 현 시점에서 집중관리 품목 재검토를 통해 향후 우려되는 공급망 문제에 대한 신재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도는 향후 우려되는 공급망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대내외 환경변화에 맞춰 대응체계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전청시 정무부지사는 "국내 경제는 물가 상승세 둔화 기조 유지, 수출 부진 완화, 소비심리·고용 개선으로 경기 둔화 흐름이 완화되는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며 "우리 지역도 경기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경제기반·단체가 힘을 모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망은 우리 지역 경제산업에 직접적인 것으로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공급망 대응 체계를 꼼꼼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경근/기자

# 김해시 '민생경제 안정' 하반기 69억원 투입

## 시민-소상공인 상생 지원책 적극 추진한다

김해시는 '민생경제 활력제고, 민생경제 안정'을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정해 시민과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지원에 역량을 모으고 19일 밝혔다.

시는 민생경제 활력제고와 민생경제 안정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365일 물가안정관리 ▲특색있는 골목상권 조성 ▲내수 붐업 소비 촉진 등 4개 분야 17개 사업에 하반기 6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시는 고금리 시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주경에 15억원을 추가 확보해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총출한 소상공인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도 확대 추진한다.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동전통시장 아카데미 보강사업 1차 구간은 지난 5월에 18억원을 투입해 완료했고 2차 구간은 13억원을 투입해 내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진영바람개비시장은 매주 금·토 체험행사와 공연을 개최해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한다.

도 코로나19 인한 소비패턴 변화에 대응해 김해시 중소기업공동도매물류센터에 올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디지털물류 플랫폼을 구축 중이다. 김해통합쇼핑몰 김해온몰은 추경에 2억원을 지원해 판매자와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지역 상품을 홍보·판매하는 판로 개척의 장이 되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우크라이나 전쟁,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시민을 위해 착한가격예소를 선정, 홍보하고 있다. 김해지역 착한가격예소는 경남 최다인 100개로 시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행정안전부의 물가안정관리 우수 지자체에 선정돼 추가로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 2024년부터는 착한가격예소 확대 지정과 함께 소상공인의 현실적인 의견을 반영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경상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내외동 무로거리와 율하카페거리의 지역정체성을 골목길에 담아내어 김해를 찾는 방문객에게 '365일 빛의 거리', '귀피한잔의 여유가 있는 카페거리'를 선보일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2023 특화거리 2개소를 추가 지정해 상권 활성화를 꾀한다.

이 밖에도 내수 불입을 위해 김해사람 상품권 확대 발행, 김해온몰, 공공배달앱 먹매비, 우체국 쇼핑몰 김해브랜드관에서 열린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내 전통시장에서도 추석맞이 온누리상품권 페어백 행사를 추진 중이다.

홍태용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립적인 물가안정 참여 분위기 조성에 집중하고 중앙정부의 경제정책에 발맞춰 다양한 물가안정대책을 발굴, 추진해 시민의 정바구니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승/기자

# 북부지방산림청, 종자공급원 신규지정을 위한 현장토론회 개최

## 북부지방산림청, 지속가능한 우량종자 공급 기반 마련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9월 19일 충청군 내면 자연리 조립사업지에서 종자공급원 신규지정을 위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종자공급원란, 우량한 조립을 종자를 지속적으로 생산·공급할 목적으로 조성 또는 지정된 임분을 말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립산림품종센터, 국립

산림과학원 전문가 및 담당자 등이 참석해 종자공급원 신규지정 대상지에 대한 선정 적정성 검토 및 환경개선사업 작업방식,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해 자유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정대상 수종은 마가목, 분비나무미리, 금번 종자공급원으로 신규지정 및 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될 경우,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함께 종자 결실 환경이 개선되어 대상수종에 대한 향후 조립을 우량종자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북부지방산림청장은 "내실있는 종자공급원 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조립을 우량종자 확보하고, 이를 통해 차질 없는 조립 등 산림사업을 시행해 울창한 숲을 조성해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광승/기자

# 한국버스방송 사내 벤처 디에이밍, AI플랫폼 기반 양방향 AI 스마트앱 개발 나섰다

한국버스방송 디에이밍, 옥외 온라인 위치기반 양방향 AI 스마트 앱 'BEE TV' 개발 착수 보고회 개최

디지털 사이니지를 AI와 접목하여 고도화된 플랫폼으로 전환

콘텐츠 소비자와 광고주, 매체 모두를 위한 혁신적인 플랫폼 구축



한국버스방송의 디에이밍은 지난 15일 오후 분사 인근 SparkPlus Conference Room에서 옥외 온라인 양방향 AI 스마트 앱인 'BEE TV' 개발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착수 보고회에는 한국버스방송 디에이밍의 전체 임직원과 투자자, 개발사인 퍼플엔 월드의 강동호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국버스방송(회장 조재완)은 서울 시내 버스에 설치된 단말기(TV 등)를 통해 다양한 광고와 콘텐츠를 제공하는 '압티비'를 운영하는 매체사이다. 디에이밍(대표 장강서)은 한국버스방송의 자회사로 '압티비'의 운영 노하우와 축적된 기술력을 AI기술

을 접목하여 다양한 광고와 위치기반 서비스를 제공, 향후 편의점, 약국 등 생활밀착형 공간으로 매체 영역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하루 평균 버스 이용자 수는 약 460만 명에 이른다.

장강서 한국버스방송 디에이밍 대표는

"BEE TV 개발 현황, 플랫폼 고도화, 매체 확장 전략, 효율적인 영업 전략을 공유했으며, 향후 확장성에 대한 목표들을 재점검하여 1억 460만 명의 버스 이용객과 정류소별 업체와 연동되는 신개념 광고 플랫폼이 서비스 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BEE TV 개발 착수 보고회 참가자들은 데이터와 위치기반 서비스가 접목된 AI 맞춤형 광고 서비스가 최초 개발되는 시발점이 됐다고 호응이 이어졌다.

한국버스방송 디에이밍이 개발하는 양방향 AI 플랫폼 스마트앱은 금년 내에 개발을 완료하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최광승/기자

예천군 우수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 예천장터

물 좋기로 소문난 鳳凰, 非醴泉不飲(莊子)

봉황은 예천이 아니면 마시지 않는다. (장자)

# 醴泉

단술 에 샘 천

예천 사과

예천 참기름

예천 쌀

예천 한우

예천장터

검색창에서 예천장터를 검색하세요!

주문 및 상담안내 : 054)650-6280

<http://www.ycjang.kr>

# 강원도, '2024~2033 미래산업글로벌도시 밀그림 착수'

## 종합계획 사전설명회 개최를 시작으로 밀그림 작업 돌입



강원특별자치도는 9월 19일 도청 제2별관 대회의실에서 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사전설명회 개최를 시작으로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첫 법정 종합계획인 '2024~2033 미래산업글로벌도시 밀그림 착수'에 돌입했다.

이번 사전 설명회는, 분야별 계획 수립 지원과 설명을 위한 자리로 종합계획 수립 방향 소개, 특별자치도 특별발전 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및 토의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는 종합계획 수

립의 타당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12개 분야별 도청 실국 담당자와 산하기관 전문가로 종합계획 수립 협의체(T/F)를 구성하여 보다 전문화되고 차별화된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종합계획 수립의 주요 내용은, 우선 3대 도정목표(1인구 200만, 2 GRDP100조원, 1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와 지난 7월 발표한 미래강원2032 발전전략에서 제시한 9대 전략을 바탕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제시한 산업, 관광, 교육 등 18개 항목과 농촌 활력 촉진지구, 산림이용진흥지

구 등 핵심 미래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제시하고,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도표, 그림 등으로 종합계획을 입체화, 구체화하여 차별화된 계획을 수립하여 나갈 예정이다.

도에서는 산하기관 전문가-자문단애 이어 도청 실국, 교육청, 시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사전설명회를 이달 말까지 완료하고, 내년 1월까지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초안을 수립한후, 관련분야 전문가 토론회, 도민 의견 수렴, 도의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7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김명선 행정부지사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이 향후 10년 도정비전의 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주자치도 사례의 장단점 분석과 새로운 강원특별자치도의 기회 및 위험요인을 분석·예측하고, 향후 대응방안 및 추진방향이 제시 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을 차질 없이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필/기자

# 태백시, 제3회 황부자 며느리 축제, 성황리에 마쳐...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황지연과 복원을길 일원에서 개최된 '제3회 태백 황부자 며느리 축제'가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황부자 며느리 축제는 15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체험행사, 공연행사, 경연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제2회 태백 황부자 전국 며느리 가요제"는 본선에 진출한 13명의 며느리들이 정당한 노래실력을 뽐냈고, 축하가수로 장구곡의 신 박사선, 나팔박, 정세유이 축하무대를 가졌다.

축제 둘째날 열린 "2023 태백 전국 통기타 경연대회"는 전국 각지에서 참가한 14명의 통기타인들이 통기타 선곡의 매력을 전했으며, 축하가수로 박창근을 비롯한 양문준, 이은하가 출연해 열기를 더했다.

또한, 아리랑을 기반으로 황부자 전설 스토리를 보여주는 황부자 마당극과

황부자 며느리 혼례사, 소망등 띄우기, 어린이 사생대회, 시민화합 율놀이 대회, 황대강 어르신 장기자랑, 맨손잡어잡기 대회, 시민노래방, 스마트폰을 이용한 미션탐험대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그 어느 때보다 열띤 호응을 이끌어냈다.

전영수 황부자며느리축제위원장은 "제3회를 맞이한 이번 태백 황지연황부자 며느리 축제는 전 세대를 아우

르는 다양한 체험을 마련하여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화합의 장이 되도록 노력했다"라며, "내년에는 더욱 알차고 풍성하게 축제를 준비해 태백시의 3대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비가 오는 곳엔 날씨에도 축제장을 찾아주시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유상근/기자



# 원주시립중앙도서관, 2023년 하반기 어린이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원주시립중앙도서관에서는 10월 5일부터 하반기 어린이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도서관 문화강화실과 어린이자료실 통하나라에서 '구리기 책방 놀이터', '호기심 과학 실험실', '생각 숲속·마음 숲속 독서회' 등 총 3개의 강사로 구성됐다.

'구리기 책방 놀이터'는 아동 6~7세를 대상으로 어린이들이 그림책에 흥미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책놀이와 만들기를 하는 수업이다.

'호기심 과학 실험실'은 초등 1~3학년 level 대상으로 과학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는 탐구 실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생각 숲속·마음 숲속 독서회'는 초등 2~3학년을 대상으로 그림책을 읽고 나의 생각으로 이야기하며 마음을 키워가는 수업이다.

9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원주시립중앙도서관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김정화/기자

구리기 책방 놀이터	호기심 과학 실험실	생각 숲속·마음 숲속 독서회
10. 10.~11. 28.(토) 15:30~17:30 대상 : 아동 6~7세 (15명) 대상 : 10명 (연말정산대상자 10명)	10. 10.~11. 28.(토) 15:00~16:00 대상 : 초등 1~3학년 (15명) 대상 : 10명 (연말정산대상자 10명)	10. 11.~11. 28.(수) 18:30~17:30 대상 : 초등 2~3학년 (15명) 대상 : 10명 (연말정산대상자 10명)
구리책방 놀이터를 가보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해보고 구리책방 놀이터를 가보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해보고 구리책방 놀이터를 가보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해보고	과학의 원리를 재미있게 스스로 과학 실험을 해보고 과학의 원리를 재미있게 스스로 과학 실험을 해보고 과학의 원리를 재미있게 스스로 과학 실험을 해보고	구리책방 놀이터를 가보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해보고 구리책방 놀이터를 가보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해보고 구리책방 놀이터를 가보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해보고

독서문화진흥원 727-4443  
도서관 사서로 전화로 상담과 예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주시립중앙도서관

원주시립중앙도서관

원주시

# 아산시 "미래지향 맞춤형 교육도시 조성 위해 행정역량 집중할 것"

## 오세규 평생학습문화센터 소장, 19일 아산시 교육·문화사업 브리핑

아산시가 미래지향 맞춤형 평생 학습 도시 조성을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오세규 아산시 평생학습문화센터 소장은 19일 비대면 브리핑에서 "지난해 아산시는 '제1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좋은 정책 어워드' 수상, 충남 최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임단위 인증' 획득, '제55회 한국도시관광상' 수상 등 아산시는 2023년 교육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면서 "민선 8기 아산시는 맞춤형 교육도시 선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세규 소장은 그러면서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도시 조성 △아산형 교육을 통한 인재 육성 △인재도시 함양에 교육·문화 환경 조성 △인재역량 복합 문화공간 확충 등 4대 주요 시책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우선, 시는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 도시 조성을 위해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를 2024년부터 17개 전 읍면동으로 확대한다.

맞춤형 평생 교육 지원을 위한 교양 위주 기술훈련-전문자격증 등 3개 분야 270여 강좌, 장애인 사회 참여 기회 확대와 평생학습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또, '행복 아산시인 아카데미', '아산에 사는 인문학 여행', '고령 평생학습 인문학 아카데미', '이웃선 리더십 아카데미' 등 시민 대상 인문학 프로그램은 높은 인기를 반영해 확대 운영한다.

아산형 교육육성인재육성계획도 밝혔다.

우선 '청소년이 읽어야 할 고전 57선'을 선정, 교육과정과 연계한 '11권 고전 읽기'를 운영 중이다. 오는 11월에는 '아트벨리 아산 제1회 전국 청소년 고전 토론대회'를 개최한다.

신규 발굴 교육사업으로 △25명 내외 영재 관악단 '아트벨리 아산 유스밴드' 육성 △정선년 대상 코딩·로봇 수준별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 '미래산업 꿈나



무 아카데미' 운영 △게임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아트벨리 아산 청소년 e스포츠단' 운영 등을 소개했다.

오 소장은 "아산시는 21세기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감성과 지혜를 갖춘 창의 융합 인재 양성에 집중할 것"이라며 "감성·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청소년문화예술단 운영, 학교의 특수성을 살리는 '아산형 특성화 방과 후 프로그램 공모사업' 등 지속해서 아산형 교육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산촌 원어인 영어, 중국어 화상 학습을 지원하는 등 글로벌 인재 육성 및 사교육비 절감을 통한 복지 구현에 도 이바지할 예정이다.

권역별 도서관 확충 및 지역 밀착형 독서 환경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우선 배방북향커뮤니티센터 내 도서관과 음북북향커뮤니티센터는 2024년 2월, 배방월천도서관은 6월, 서부권 공공도서관은 2028년 6월 개관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 중이다.

동시에 지역 서점에 대출하고 반납하는 '희망 도서 바로 대출 서바이' 시스템 도입, 시대 변화에 맞춘 모바일 독서 대출 환경 구축,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정기 독서문화 프로그램 등 시민이 편리

하게 책을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지속해 추진한다.

오 소장은 "기초 입산부 및 장애인, 한부모, 조손 가정 등 사회적 배려자에 국한했던 '명동! 책 배부' 사업 대상자를 도서관이 없는 읍·면 지역까지 확대하면서 도시 대출률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소개했다.

오 소장은 "아산시는 시민의 평생 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 도시, 다채로운 아산형 교육지원 사업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이 행복한 도시, 시민의 위해를 적극 실천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인·근구중지역 2개, 9개 교도 신성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아산 월천초·세교중·모충중·충주고는 2025년 3월 개교 예정인데, 천우중·조·애원초·탕정2고는 2026년 3월 개교 예정으로 현재 중앙투자 심사를 통과했다.

아산 탕정7초는 올해 10월 중앙투자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음북·탕정지역도 개별 수요에 맞춰 고등학교 신설을 적극 검토 중이다.

김원호/기자

# 천안시, 고위공직자 대상 하반기 반부패 청렴 교육 실시

## 간부 공무원들이 솔선해 청렴한 조직 분위기 조성 앞장

천안시는 지난 18일 시청 본청에서 4급 이상 고위직과 승진자, 신규입양자 등 생애주기별 공직자를 대상으로 '2023년 하반기 반부패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박상진 시장을 비롯해 천안시 공직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부 공무원들이 솔선해 청렴한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면서 자신을 경계해볼 수 있도록 마련했다.

교육은 청렴 교육 전문 강사인 행정안전부 이해원 행정사무관을 초빙해 공무원 행동규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관련 법령과 제도, 공직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사례와 예방요령 등을 소개했다.

박상진 시장은 "이번 교육이 직장 내 갑질 문화를 근절하고 청렴 문화가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청렴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간부 공무원이 솔선수범

을 잘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으며, 올해도 도시 위생에 걸맞은 청렴 환경 조성을 위해 신규입양자 소통하는 청렴도 운영 등 4대 전략 12개 과제를 선정, 청렴시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김원호/기자

충북도는 치료가능 사망자(500명) 전국 1위, 입원환자 중증도 보정사망비(1.29) 전국 1위, 인구 천명당 의사 수 전국 14위 등 전국 최하위 수준의 의료서비스로 인해 차별받고 있는 도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도내의 과잉의료 정원을 확대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충북의 주요 병원들은 지역에 근무를 원하는 의사 부족으로 인해 정원(946명) 대비 182명 부족한 상황으로, 지역의 거점 의료기관인 충북대병원도 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부권 의료거점인 건국대 병원의 경우에도 정원 118명 대비 64명 부족한 54명도 운영 중에 있다며 지역 내 의사 수 확대가 절박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에서는 도내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대 및 부산병원 설립에 수련원원의 비용과 수련기간의 시간 이 소요되고, 지역 외 대학간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의대 신설보다는 예산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정원 50명 이하의 소규모 의과 정원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충북의 의대정원은 89명(충북대 49명, 건국대 40명)으로 비수도권 광역도 평균 197명에 크게 미달하고 있으며, 국·사립대별 비교 시에도 국립대 평균이 96명인데 비해 충북대는 51%에 불과하며, 건국대도 사립대 평균 70명의 57%에 불과하며 필수의료인력 양성에 제약이 큰 상황으로 의대정원 확대가 절박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충북대 및 건국대 의대는 현재의 교수진 및 시설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비용 없이 시간 투자없이 기존보다 2배의 정원 확대가 가능한 상황이라며, 기존 의대의 정원 확대를 통한 의사양성이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 방법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충청북도는 지역의 정원 확대가 지역의료인력 증가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대한의사협회의 자원으로 따르는 성장지역도 지역의 의사의 지방근무 비율이 수도권 출신의 의사의 지방근무 비율보다 3배 높으며, 도 지역에 위치한 의대 출신의 의사 지방근무 비율도 수도권에 출신 의사의 지방근무 비율보다 3.0배 높은 의사들의 의정원 확대를 통해 지역근무 의료인력을 확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대수증 증가 및 고령사회 가속

# 충북도, 도내 의과대학 정원 확대 활동 본격 추진

## 의대정원 89명 → 197명, 차대 50명 신설 확대 추진

충북도는 치료가능 사망자(500명) 전국 1위, 입원환자 중증도 보정사망비(1.29) 전국 1위, 인구 천명당 의사 수 전국 14위 등 전국 최하위 수준의 의료서비스로 인해 차별받고 있는 도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도내의 과잉의료 정원을 확대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충북의 주요 병원들은 지역에 근무를 원하는 의사 부족으로 인해 정원(946명) 대비 182명 부족한 상황으로, 지역의 거점 의료기관인 충북대병원도 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부권 의료거점인 건국대 병원의 경우에도 정원 118명 대비 64명 부족한 54명도 운영 중에 있다며 지역 내 의사 수 확대가 절박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에서는 도내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대 및 부산병원 설립에 수련원원의 비용과 수련기간의 시간 이 소요되고, 지역 외 대학간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의대 신설보다는 예산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정원 50명 이하의 소규모 의과 정원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충북의 의대정원은 89명(충북대 49명, 건국대 40명)으로 비수도권 광역도 평균 197명에 크게 미달하고 있으며, 국·사립대별 비교 시에도 국립대 평균이 96명인데 비해 충북대는 51%에 불과하며, 건국대도 사립대 평균 70명의 57%에 불과하며 필수의료인력 양성에 제약이 큰 상황으로 의대정원 확대가 절박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충북대 및 건국대 의대는 현재의 교수진 및 시설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비용 없이 시간 투자없이 기존보다 2배의 정원 확대가 가능한 상황이라며, 기존 의대의 정원 확대를 통한 의사양성이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 방법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충청북도는 지역의 정원 확대가 지역의료인력 증가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대한의사협회의 자원으로 따르는 성장지역도 지역의 의사의 지방근무 비율이 수도권 출신의 의사의 지방근무 비율보다 3배 높으며, 도 지역에 위치한 의대 출신의 의사 지방근무 비율도 수도권에 출신 의사의 지방근무 비율보다 3.0배 높은 의사들의 의정원 확대를 통해 지역근무 의료인력을 확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대수증 증가 및 고령사회 가속

충북도는 치료가능 사망자(500명) 전국 1위, 입원환자 중증도 보정사망비(1.29) 전국 1위, 인구 천명당 의사 수 전국 14위 등 전국 최하위 수준의 의료서비스로 인해 차별받고 있는 도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도내의 과잉의료 정원을 확대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충북의 주요 병원들은 지역에 근무를 원하는 의사 부족으로 인해 정원(946명) 대비 182명 부족한 상황으로, 지역의 거점 의료기관인 충북대병원도 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부권 의료거점인 건국대 병원의 경우에도 정원 118명 대비 64명 부족한 54명도 운영 중에 있다며 지역 내 의사 수 확대가 절박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에서는 도내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대 및 부산병원 설립에 수련원원의 비용과 수련기간의 시간 이 소요되고, 지역 외 대학간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의대 신설보다는 예산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정원 50명 이하의 소규모 의과 정원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충북의 의대정원은 89명(충북대 49명, 건국대 40명)으로 비수도권 광역도 평균 197명에 크게 미달하고 있으며, 국·사립대별 비교 시에도 국립대 평균이 96명인데 비해 충북대는 51%에 불과하며, 건국대도 사립대 평균 70명의 57%에 불과하며 필수의료인력 양성에 제약이 큰 상황으로 의대정원 확대가 절박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충북대 및 건국대 의대는 현재의 교수진 및 시설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비용 없이 시간 투자없이 기존보다 2배의 정원 확대가 가능한 상황이라며, 기존 의대의 정원 확대를 통한 의사양성이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 방법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충청북도는 지역의 정원 확대가 지역의료인력 증가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대한의사협회의 자원으로 따르는 성장지역도 지역의 의사의 지방근무 비율이 수도권 출신의 의사의 지방근무 비율보다 3배 높으며, 도 지역에 위치한 의대 출신의 의사 지방근무 비율도 수도권에 출신 의사의 지방근무 비율보다 3.0배 높은 의사들의 의정원 확대를 통해 지역근무 의료인력을 확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대수증 증가 및 고령사회 가속

충북도는 치료가능 사망자(500명) 전국 1위, 입원환자 중증도 보정사망비(1.29) 전국 1위, 인구 천명당 의사 수 전국 14위 등 전국 최하위 수준의 의료서비스로 인해 차별받고 있는 도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도내의 과잉의료 정원을 확대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충북의 주요 병원들은 지역에 근무를 원하는 의사 부족으로 인해 정원(946명) 대비 182명 부족한 상황으로, 지역의 거점 의료기관인 충북대병원도 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부권 의료거점인 건국대 병원의 경우에도 정원 118명 대비 64명 부족한 54명도 운영 중에 있다며 지역 내 의사 수 확대가 절박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에서는 도내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대 및 부산병원 설립에 수련원원의 비용과 수련기간의 시간 이 소요되고, 지역 외 대학간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의대 신설보다는 예산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정원 50명 이하의 소규모 의과 정원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충북의 의대정원은 89명(충북대 49명, 건국대 40명)으로 비수도권 광역도 평균 197명에 크게 미달하고 있으며, 국·사립대별 비교 시에도 국립대 평균이 96명인데 비해 충북대는 51%에 불과하며, 건국대도 사립대 평균 70명의 57%에 불과하며 필수의료인력 양성에 제약이 큰 상황으로 의대정원 확대가 절박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충북대 및 건국대 의대는 현재의 교수진 및 시설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비용 없이 시간 투자없이 기존보다 2배의 정원 확대가 가능한 상황이라며, 기존 의대의 정원 확대를 통한 의사양성이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 방법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충청북도는 지역의 정원 확대가 지역의료인력 증가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대한의사협회의 자원으로 따르는 성장지역도 지역의 의사의 지방근무 비율이 수도권 출신의 의사의 지방근무 비율보다 3배 높으며, 도 지역에 위치한 의대 출신의 의사 지방근무 비율도 수도권에 출신 의사의 지방근무 비율보다 3.0배 높은 의사들의 의정원 확대를 통해 지역근무 의료인력을 확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대수증 증가 및 고령사회 가속

# 안성시, 추석맞이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 단속 유예 및 공영/노상 주차장 무료 개방



안성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21일부터 10월 6일까지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안성맞춤시장, 중앙시장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 단속을 일시적으로 유예하고,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양일간 주차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영/노상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단속 유예 구간은 안성맞춤시장(서인사거리-인지사거리 구간 양측 300미터)과 중앙시장(서인사거리-안성농협 양측 100미터, 석정삼거리-인지사거리 양측 500미터) 주변 도로이며 서인동, 동본동, 석정동의 건축시 공영 주차장과 전통시장 주변 노상 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

다만 행정안전부 오픈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신고 앱(안민신고)의 신고 대상인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모퉁이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등은 교통 소통 방해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예외 없이 단속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안성시는 이번 주정차 단속유예와 공영/노상 주차장 무료 개방은 주차공간이 협소한 전통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유예기간에는 안성경찰서와 협조하여 차량 소통이 원활하도록 지도 및 지도할 계획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소비가 살아나야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으니 우리 이웃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주정차 단속 유예기간 동안 보행자 안전 확보와 함께 자발적인 주차 질서 확립에 동참해 줄거문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 원주시, 추석 연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특별 단속 나서

원주시는 추석 연휴를 맞아 9월 21일부터 10월 3일까지 13일간 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 환경오염 취약지역과 관련 시설에 대한 특별 단속을 나선다.

시는 유관기관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사고 발생 시 신속히 수습할 수 있도록 수질오염 사고 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또한, 점검반을 구성해 유류 저장·보관·취급 사업장, 폐수 다량 배출 사업장, 하천 주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각 사업장에 자율 점검을 독려하여 자체적인 환경보전활동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원주천, 홍양천, 서곡천 등 수질오염 사고가 우려되는 주요 하천 지역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시를 수질오염 사고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김정환/기자



# 광주시, 추석 연휴 주·정차 단속 한시적 유예 및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광주시는 추석 연휴 기간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귀성객 편의 제공을 위해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유류 공영주차장 8개소에 대한 무료 개방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추석 연휴로 이용객이 많은 경안시장과 근지암시장 일대의 주·정차 단속을 오는 22일부터 10월 3일까지 12일간, 광주시 관내 주·정차 금지구역 321개소의 주·정차 단속을 오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7일간 유예 할 예정이다. 다만,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인 △소화전 전후방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전후방 5m 이내 △버스정류소 전후방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보도)는 유예에서 제외된다.

유예기간 동안은 차량 소통이 원활하도록 계도 위주로 지도 단속할 계획이며 단속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는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한해서 기존과 같이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시장 주변 지역의 교통 혼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류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8개소(경안동, 경안시장, 역동, 상반천, 근지암배수펌프장, 광주역세권, 송정동 마루, 경안배수펌프장)를 오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7일간 무료 개방한다.

방세한 시장은 "추석 명절 연휴 기간 한시적으로 주·정차 금지구역 단속유예 및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을 통해 시민 및 고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해 지역경제 상권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범성/기자



# 시흥시, 동물등록 및 준수사항 집중단속

시흥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및 유실·유기 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동물등록·동물등록과 동물보호법 준수사항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동물보호법(동물 미등록,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인식표 미부착 등) 위반 및 동물보호관의 직무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반려견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다.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소유자는 자신신고 기간인 9월 30일까지 반드시 등록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물등록 집중단속 기간에는 반려견 주요 출입 지역 및 다수 민원 발생 지역에서

신우용/기자

동물보호관·명예동물보호관이 근무 조를 편성해 동물등록과 동물보호법 준수사항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동물보호법(동물 미등록,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인식표 미부착 등) 위반 및 동물보호관의 직무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반려견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다.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소유자는 자신신고 기간인 9월 30일까지 반드시 등록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물등록 집중단속 기간에는 반려견 주요 출입 지역 및 다수 민원 발생 지역에서

신우용/기자



# 홍천군,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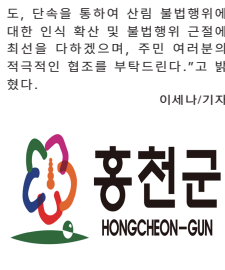


홍천군은 약초, 버섯 등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을 수확기를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굴, 채취가 예상됨에 따라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약초, 버섯 등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채취꾼과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 채취로 인한 산림생태계 및 임업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홍천군 소속 산림특별사법경찰 및 공무원 등 20여 명이 단속반으로 편성 및 투입하여 실시한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통하여 산림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 확산 및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이세나/기자



**경북,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중심지로 거듭나다!**

**-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경상북도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World Heritage in the Republic of Korea

# 경북교육청, K-edu 업무개선 경북교육 공동체에게 묻다!

## 『스토리가 있는 K-edu 업무개선은?』우수사례집 발간

경북교육청은 5년간의 업무개선과 정책 제안을 집대성한 '스토리가 있는 K-edu 업무개선은?'이라는 주제의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서 지난 5년간 교직원들의 업무를 경감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한 2,525건의 다양한 업무개선과 경감 추진 사례 중 우수사례로 선정된 138건을 선별해 수록했다.

특히 교직원들이 우수사례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 통합 표준화 '더 한눈에 쉽게' △온라인 기반으로 스마트하게 '더-디지털속으로' △절차와 처리 방법 간소화 '더 빠르고 편리하게' △현장 맞춤형 지원 '더 따뜻하게' 현상 속으로 4개의 장르로 구성했다.

또한 집필위원들과 교육감의 토론회를 통한 인사이트, 각 장르별 주요 내용을 담은 업무개선 캐릭터의 웹툰 만화, 경북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홍보 특집기사, MBTI별 학교에서 일하는 모습 살펴보기, 나라사랑 도도를 QR코드로 활용하는 등 다양하게 편성했다.

그리고 업무개선 우수사례 전달뿐만 아니라 장르별 다양한 주제를 흥미롭게 읽을거리로 제공하고 업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매거진 형태로 제작했다.

업무개선 우수사례집 발간에 참여한 위원들은 "새롭고 다양한 업무를 하시는 교직원들에게 이번 업무개선 이야기는 작은 찌릿함과 희망이 될 것이며, 계속되는 업무개선 아이디어로 우리 아이들이 진정한 주인공이 되는 학교가 될 것 기대한다"고 전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사람 중심, 즉 아이들과 교직원 중심으로 업무개선 표준을 만들어 K-edu를 선도하고, 지속적인 업무개선과 '선생님을 아이들 곁으로'라는 구호의 실천을 통해 따뜻한 경북교육이 세계교육이 표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부산교육청 부산 학생들, 전국 장애학생 진로드림 페스티벌 참가

## 장애학생들의 직업가능 향상과 진로 교육 정보 교환 기회 제공

부산광역시교육청은 21일까지 2일간 전라남도 여수시 일원에서 열리는 '전국 장애학생 진로드림 페스티벌'에 관내 고등학교 특수학급과 특수학교 중·고등학교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 14명이 참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페스티벌은 교육부가 주최하고 전라남도교육청이 주관하는 대회로 장애학생들에게 직업가능 향상과 진로·직업교육에 대한 정보 교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업교육에 대한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페스티벌은 전국 고등학교 특수학급, 특수학교 중·고등학교 과정에 재학 중인 시·청각장애, 지체장애학생 등 137명이 참가하고, '직업가능 경진대회'와 '제

험 활동'으로 나눠 진행된다.

직업가능 경진대회는 청각·시각·지체 장애 영역별로 2~3종목씩 총 13개 종목으로 운영된다. 부산 학생들은 제과제빵, 시각디자인, 점역교정, 사무 행정 등 11 종목에 참가한다.

체험 활동은 물·빛·소리의 멀티미디어 쇼 '빅오쇼', 아쿠아볼라넷(아쿠아리움)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뤄졌다.

이성환 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이번 페스티벌은 장애학생들의 직업능력과 미래 생활역량을 키우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과 취업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경북교육청, 유아의 행복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이음교육

## 2023년 유·초 연계 이음학기 54개원 시범 운영



팅 실시 등을 통해 유·초 연계 이음학기 운영모델과 사례를 발굴한다.

또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4억 8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원 30명을 컨설턴트로 선정해 이음학기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향후 사업설명회와 결과보고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해나갈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전환기 교육을 강화해 학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초등학교 입학 등을 이유로 이루어지는 조기 사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북교육청은 2023년 2학기 유·초 연계 이음학기 시범운영을 위해 전국 최대 규모인 유치원·초등학교 54개원을 공모로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유·초 연계 이음학기'는 유아의 발달과 놀이 경험이 이어질 수 있도록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협력적 연계 사례를 발굴하고, 전환기 유아의 성장 발달과 안정적인 초등학교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시범운영팀은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유·초 연계 교육과정 운영,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상호 공간 공유, 보호자 교육 및 컨설

# 울산교육청, 추석 명절 맞아 이웃사랑 실천

## 사회복지시설 방문해 1,200만 원 상당 위문품 전달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추석을 맞아 19일과 25일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7곳에 1,200만 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한다.

전청수 울산광역시교육감은 19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양육원을 찾아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최성부 부교육감도 이날 울산시 북구 아동복지시설인 겨자씨와 장애인 생활시설인 메아리를 방문해 생활용품과 식품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영환 행정국장 등 간부 공무원도 19일과 25일 양일간 울산시 중구 보리수마을 등 4개 시설을 방문해 위문품 예정이다.

울산시교육청은 해마다 명절마다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해 왔으며, 앞으로도 사회적 온정 나눔이 절실한 시기에 이웃사랑 나눔을 지속해서 전개할 계획이다.

전청수 교육감은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며 "모처럼 긴 연휴인 추석에는 가족, 이웃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규진/기자



# 부산수산물

## 꼼꼼하게 검사하고 촘촘하게 감시합니다

### 안심하고 드세요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 UNESCO Korea in Korea



Gyeongbuk World Heritage

## 경북 세계유산을 통해 지방시대를 견인하겠습니다!

### 핵심과제



#### 외연확장

가야고분군(고령 지산동 고분, '23.9. 등재유력), 태실, 한지, 활문화 등 신규발굴



#### 맞춤형 관광자원화

신라왕경 역사가로길, 하회권 퀸스로드, 서원·산사 명품순례길 조성



#### 디지털 대전환 선도

천년 신라왕경 디지털(메타버스) 복원, 천년 유교경전각 건립



#### 문화유산 생태계 혁신

디지털 콘텐츠 산업클러스터 조성, 딥러닝 기반 전통기록물 해독